

#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소속기관명: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협동조합

성 명: 신소희, 최정선, 정영환

# 제 출 문

2019년도 농업실용연구과제로 지원받은  
【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개발 】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4월 30일

책임연구자 : 신 소 희



공동연구원 : 최 정 선

정 영 환

---

## 목차

###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소개

제작 배경	1
누가 보는 책인가요?	2
어떤 내용이 있나요?	2

### 1장. 돌봄농업 이해하기

1. 돌봄을 생각하기	3
가. 진정한 돌봄	4
나. 농사와 돌봄	4
다. 농촌 마을과 돌봄	4
2. 사회적 농업 알기	6
가. ‘사회적’ 농업: 지역사회 기반과 사회 통합	6
나. 사회적 ‘농업’: 다기능농업의 확산	8
다. 사회적 농업 ‘실천’: 사회 혁신 촉진	9

### 2장. 돌봄농업 궁리하기

1. 원칙	11
가. 돈벌이가 아니라 관계	11
나. 복지 서비스업이 아니라 농업	11
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일	12
2. 학습	14
가. 돌봄 농업 / 사회적 농업 알아보기	14
나. 선배 농가 찾아가기	17
다. 돌봄농업 참여하기: 자원봉사, 실습, 인턴십 등	18
3. 지역조사	20
가. 현장조사: 찾아가서 듣기	20
나. 문헌조사: 객관적 자료 모으기	21

### 3장. 돌봄농업 실행하기

1. WHO_누가, 누구를, 누구와	27
가. 누가 할 수 있을까: 돌봄농업 실천 주체	27
나. 누구를 만날까: 돌봄농업 참여자	30
다. 누구와 함께 할까: 마을과 지역의 협력	31

2. WHEN_언제, 얼마나	35
가. 적정 규모와 횟수	35
나. 연중 활동계획	35
3. WHERE_장소로서의 농장과 마을	37
가. 자연의 품	37
나. 만남의 장소	37
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40
4. WHAT_돌봄농업의 구성	44
가. 농촌 체험 교육 vs. 돌봄농업	45
나. 직업재활 훈련 vs. 돌봄농업	45
<b>4장.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돌봄농업 실천</b>	
1. 행복농장 이야기	47
가. 2013년	47
나. 2014년	47
다. 2015년	52
라. 2016년	53
마. 2017년	55
바. 2018~2019년	56
사. ○○언니	60
2. 협동조합 행복농장 2019년 돌봄활동 기록	63
가. 자연구시	63
나. 돌보는 농부학교	81
다. 꼬마농부학교	95
참고문헌	102

## 돌봄농업 실천 매뉴얼 소개

### 제작 배경

아이와 노인, 몸이 아픈 사람, 마음이 아픈 사람,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관계 속에서 돌봄을 주고받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 아니라 사람과 자연, 동물과 식물, 사물과 생각까지 모두 돌봐야 한다(김은주 외, 2005)는 관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말과 같은 뜻일 지도요.

최근에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돌봄의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하는 돌봄의 공공성, 돌봄의 사회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돌봄의 노동과 비용, 그 책임과 부담은 개인과 가족이 무겁게 짊어지고 있었지요. 국가와 지역사회의 역할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힘으로 자신이 살던 곳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목표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에는 전국 16개 지역을 선정해 지역 현황에 맞는 다양한 복지 모델을 발굴·검증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기본법’ 제정도 준비 중입니다. 농촌은 도시보다 인구와 소득이 적을뿐더러 고령화율이 높고 사회복지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지역사회 내 돌봄의 주체 형성, 자원의 발굴과 동원, 협력 체계 구축 등 멀리 내다보고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 중 81번째 과제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에서 ‘취약계층 대상 영농 활동과 연계해서 건강·교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농장을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농림부는 2018년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20년 현재 총 30개 농장 및 조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 지원 정책 사업이 확대되는 동시에 실천 사례의 발굴과 분석, 실천 주체의 육성과 확산의 필요도 커졌습니다.

돌봄농업은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농업의 다기능성을 기반으로 돌봄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농촌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한국 농촌 곳곳에서 이미 여러 시도와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관심과 열의를 지닌 이들이 돌봄농업의 관점과 실천 기법을 적절하게 학습하고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는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농업과 돌봄 활동을 매개로 지역 내 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활동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농업 농촌 현실에 맞는 돌봄농업 실천 모델을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마을연구소 일소공도에서는 일반 농민들이 농촌 마을에서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그간의 경험과 성찰을 모아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 누가 보는 책인가요?

돌봄농업에 관심을 가진 농민을 위한 책입니다. 농장에서 농업 생산 이외에 다양한 만남과 의미 있는 활동을 펼치고 싶은 농민, 마을에서 이웃들과 서로 돌보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고자 하는 농민,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농민에게 돌봄농업을 소개합니다.

농민뿐 아니라 마을활동가, 지역 조직, 보건복지 관련 기관 실무자, 공무원, 연구자, 예비 귀농·귀촌인 등 다기능농업과 농촌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궁리하는 많은 분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 어떤 내용이 있나요?

돌봄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들이 견지해야 할 관점부터 실제적인 안내, 각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모았습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농업 생산 기반을 갖춘 후부터 돌봄농업 실천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지역의 배경과 상황, 농가의 규모와 영농방식, 돌봄농업 실천 동기와 추구하는 방향, 활동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돌봄농업 실천의 일률적인 모델과 방법을 제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지침을 제시하기보다는 한국의 농업 농촌 현실에서 돌봄농업을 구상하고 실천할 때 최소한의 원칙과 지향은 어떠해야 하는지, 농촌 지역사회에서 누구와 어떻게 만나고 무엇을 협업할 수 있는지에 보다 중점을 두었습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경험을 정리했습니다. 2013년 농장을 설립하게 된 배경부터 농업 생산과 돌봄 활동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행복농장의 7년의 시간을 담았습니다. 또 2019년 성인 만성정신질환자와 발달장애아동과 함께 했던 돌봄활동 기록을 공유합니다.

## 1장\_돌봄농업 이해하기

내가 생각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 과연 돌봄농업이 맞을까, 우리 농장에서 그동안 했던 활동들은 돌봄농업이 아닐까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돌봄농업care farming,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이라는 말은 유럽에서 먼저 사용했습니다. EU에서는 일찍이 사회적 농업 실천을 사회 통합과 사회 혁신의 수단으로 주목하고 그에 따른 지원체계와 법률을 정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농업 실천과 논의를 먼저 시작한 유럽에서도 국가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배경과 경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물며 외국의 개념과 정의를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나라 현실에 무작정 대입하기는 어렵겠지요. 그동안 농업을 바탕으로 이웃과 마을을 돌보고 함께 어울려 살아가고자 하는 적극적인 실천이 그동안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지역마다 농가마다 다른 상황과 맥락에서 다른 내용과 방식으로 서로 돌봄을 실천해온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돌봄농업이다/아니다를 단순한 기준으로 가릴 수는 없습니다. 돌봄농업의 정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우리나라 농업 농촌 현실에서 더 풍부하고 다양한 실천들이 싹트고 확산될 수 있도록 경험과 생각을 나누는 과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1. 돌봄 생각하기에서는 돌봄농업 실천을 이야기하기 앞서 돌봄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던집니다. 돌봄의 본질을 생각해보고, 돌봄과 농사의 연결, 농촌사회에서의 돌봄을 함께 궁리합니다.

2. 사회적농업 알기에서는 사회적 농업의 개념과 의미를 살펴봅니다. 한국 농업 ·농촌 현실에서 사회적 농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봅니다

### 1. 돌봄 생각하기

대지는 자신을 내세우며 군림하지 않는다. 대지는 스스로 숨으면서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품 안에서 자라는 모든 것을 따뜻하게 보살피면서 그것이 자유롭게 존재하도록 지탱해 주는 신뢰와 자비의 한없는 기반이다. ... 대지 위에 삶의 자리를 짓는다는 것은 농부가 밭을 돌본다는 의미와 더불어 집을 짓거나 작품을 건립하는 제작을 통해 구체적인 자리를 지어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 인간이 자신의 터에 거주한다는 것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친숙한 세계 속에서 참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본질 안에 머문다는 것이다. - 공병해, 2017

#### 가. 진정한 돌봄

농부는 본래 돌보는 사람입니다. 땅을 돌보고, 작물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주변 환경을 돌보고,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고, 마을을 돌봅니다. 기름진 흙은 다시 건강한 작물과 사람을 키우고, 농가 살림을 풍요롭게 합니다. 작은 배려와 선의는 친밀한 이웃과 따

뜻한 지역사회를 만듭니다. 돌봄의 관계는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봄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삶의 도처에서 좋은 삶을 기획하고 증진하기 위한 삶의 기본 방식이자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는 기술'(공병혜, 2017)입니다. 돌보아 주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모두 돌봄의 주체입니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존재 그대로 서로 다른 입장과 표현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돌봄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재활·교육·훈련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을 마음 놓고 펼쳐낼 기회와 공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돌보는 이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지배하고 어떻게 되기를 요구하는 것은 진정한 배려가 아닙니다. 상호 인정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도록 돕는 일, '자기 체험의 의미를 스스로 이해하고 주위 세계를 신뢰하면서 미래의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결'이 되어주는 것이 진정한 돌봄입니다. 그리고 그 결을 지키는 이에게 다시 결이 있을 때, 그 '결에 결을 구축'(엄기호, 2019)하는 일이 돌봄의 사회화입니다.

## 나. 농사와 돌봄

어쩌면 농사는 가장 온전한 돌봄을 배울 수 있는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순환하는 자연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생명과 협업하여 좋은 흙을 기르고 건강한 작물을 키워 다시 생명을 살리는 일이지요. 매일의 노동과 기다림으로 정성을 쏟다보면 어느새 자연의 품안에서 든든한 돌봄을 받고 있음을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밖에서 늘 보살핌만 받던 이도 농장에서는 생명을 가꾸고 돌보는 주체가 됩니다. 농사일에 있어서는 농부와 활동 스태프, 참여자의 역할이 동일합니다. 씨앗을 심는 일, 흙을 고르는 일, 물을 주는 일, 주변을 말끔하게 정리하는 일, 결가지를 따주는 일, 열매를 수확하는 일, 동물의 먹이를 챙기는 일,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일, 계절의 변화와 꽃의 아름다움, 작물의 성장에 감탄하는 일,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는 일 모두 돌보는 활동입니다.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함께 어울리고 농사일을 하다보면 자기 문제에 신경 쓸 겨를 없이 사람들과 농작업에 집중하게 되지요. 또 스스로 돌보고 서로 돕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돌봄의 책임을 느끼고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하루의 리듬을 만들고, 많은 일들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게 되지요. 돌봄을 받기만 하다가 돌보는 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긍심을 갖게 되고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 다. 농촌 마을과 돌봄

“... '나는 어떤 교구 안에 있는 한 마을에서 태어났다'라고 농부는 늘 그렇게 자기소개를 시작했다. 그런 식으로 그는 자신의 존재에 그 마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었다. 마을은 그가 세계 속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모든 인류와 그의 관계를 알게 되는 확고한 지점이었다.” (오스카 핸드린, 1951; 에드워드 렐프, 2005에서 재인용)

마을 어귀 늪흙한 정자나무 아래엔 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온종일 풀과 씨름하다 한숨 돌리는 농부도, 나무그늘 찾아 슬슬 마실 나온 어르신도, 할머니 따라 나온 어린 아이도 시원한 물 한 잔, 수박 한 조각에 안부를 나눴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마을에 사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을의 친족과 친구들은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 때마다의 농사일이며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일, 마을에 필요한 일들을 함께 해나갔습니다. 마을에서 참된 관계를 맺고 정을 나누고 돌봄을 대물림했습니다. 마을은 일과 삶, 이웃과 동료, 가정과 마을, 정주공간과 자연환경이 분리되지 않는 상호의존적이며 구체적인 생활세계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친숙한 세계에서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산업화·도시화를 거치며 젊은이들은 마을을 떠나고 농촌 마을 인구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마을 스스로 해결했던 많은 일들이 국가와 시장으로 전유됐습니다. 공동체 문화와 일상의 기예들은 더 이상 전수되지 않습니다. 차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면에 있는 학교들은 하나둘 문을 닫습니다. 20~30대 청년 농민은 네다섯 개 마을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마상진 외, 2017) 50~60대가 마을의 막내인 경우가 허다하지요. 본인은 마을의 어르신과 이웃을 돌보고 마을일을 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마을에 누가 남아 나를 보살펴 줄까 헛헛함을 느낍니다. 허리가 아픈 꼬부랑 할머니는 매주 약 받으러 버스를 한참 타고 읍내로 나가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나면 돌봐줄 이가 없으니 평생 살던 마을을 떠나 자녀들이 사는 도시 근처 요양원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률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입니다. 농촌 노인 자살률이 도시보다 약 1.5배나 높습니다.

농촌 마을에서 돌봄의 문화와 기능을 어떻게 되살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여전히 농촌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촌 마을은 아직까지 대면사회입니다. 옆집 사정을 서로 훤히 알고 있지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멀리 사는 가족보다 동네 이장님을 먼저 찾게 농촌의 인지상정이랄까요. 봄이 되면 기계를 가진 건장한 농부가 할머니의 작은 밭떼기를 갈아주고 부녀회에서는 정기적으로 홀로 사시는 어르신 댁에 반찬 나눔을 합니다. 해마다 여러 집이 못자리를 함께 내며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고 한여름에는 울력으로 다같이 마을길 풀을 깎습니다. 농한기에는 회관에 모여 함께 음식을 해먹고 놀이도 합니다. 고령화·과소화라는 어려운 여건과 함께 농촌 지역의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도시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와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농촌의 근간이 되는 농업이 주요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농업은 그 자체로 농촌 삶의 양식입니다. 농촌 문제와 농업 문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지요. 돌봄농업, 나아가 사회적 농업 실천과 확산에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른바 정신장애인의 사회 복귀라는 말을 흔히 해왔고, 그에 대해 별 의문조차 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왜 정신장애인만이 사회 복귀를 해야 할까…… 장애인은 정말 그런 것을 위해 태어난 것일까 하고 말이지요. 또는 우리의 역할도 말이에요. 그저 장애인의 장애성

에만 시선을 두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차원의 일을 해나가는 것이 정말 우리 역할일까 하고 말이지요. 거기에 정말 의문이 있었거든요.”

장애인의 사회 복귀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사회 복귀야말로 주제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사회 복귀란, 즉 복귀해야 할 사회란 어떤 것일까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우라카와라는 마을에 대해 말하자면, 사는 사람이 적고 일자리도 없으며 모두들 나날의 생활에 고생을 겪고 있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마을을 뒤로 하고 떠나지 않는다. 과연 이런 마을에 복귀하는 것이 행복한 것일까? 이 마을 자체가 '사회 복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 사이토 미치오, 2016

## 2. 사회적 농업 알기

“모든 생물은 ‘자기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개체라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생물과 물질과 에너지, 그리고 정보를 교환하는 공동체’이다. ‘남’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 - 린 마굴리스 (김도현, 2019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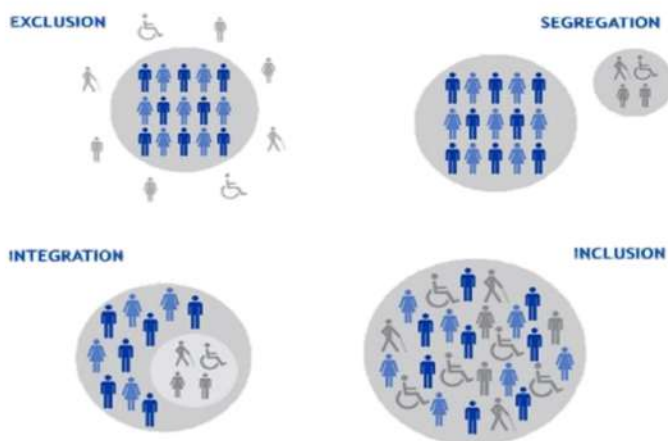
### 가. ‘사회적’ 농업: 지역사회 기반과 사회통합

‘사회적social’의 반대말은 ‘개별적individual’ 또는 ‘개인적personal’입니다. 개별 농가가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농업 생산이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업 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을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지 않겠지요. 한편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모든 형태의 농업’을 두루뭉술하게 사회적 농업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전제한다면 사회적 농업이 아닌 농업이 없을 테니까요. 사회적 농업 실천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려면 ‘사회적’ 의미에 관한 풍부한 논의를 거친 공통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앞선 경험과 연구를 해온 유럽에서는 ‘사회적’이라는 말을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경험하는 이들의 통합inclusion으로 보는 규범적 지향이 나타납니다.(김정섭 외, 2017) 그가 거주하는 지역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나 기회, 자원에 접근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사회적 배제라고 합니다. 이때 초점은 ‘할 수 없는’ 개별적 존재가 아니라 ‘할 수 없게 만드는’ 사회의 체계에 있습니다.

그림1. 사회적 배제와 분리, 포용, 통합

출처: <https://www.aspiresport.eu/>



우리나라 농촌 지역사회에서는 어떤 이들이 배제되어 있을까요? 정신적·신체적 손상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장애인, 언어적·문화적 차이로 인해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주민, 소수자 뿐 아니라 복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증 치매 노인, 지역에 연고나 기반이 없는 귀농 청년, 온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 등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농촌에서는 농업을 통해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재활이나 교육, 돌봄을 촉진하거나 특정 집단에서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Di Iacovo&O'Connor, 2009) 영농활동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을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서로 돕는 일이지요.

즉, 사회적 농업은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 이웃을 돌보는 실천,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사회 안으로 끌어안는 농업실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적 기반은 바로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주체들이 속한 지역사회’가 됩니다. (김정섭 외, 2017)

그림2.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 유형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사회적 농업은 그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노동 통합적 사회적 농업은 급여를 받는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떨어지고, 고용 기회에 있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는 장애인, 장기 실업자, 이주민 등에게 농업 실습 교육 및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2) 돌봄 사회적 농업은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다양한 그룹을 대상으로 각기 특성과 요구에 맞는 건강관리, 보호, 요양, 재활 등 돌봄 활동을 운영합니다. 농업 활동을 기본으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실천이 많습니다.

(3) 교육 사회적 농업은 일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장 생활, 건강한 먹거리, 자연 환경을 주제로 영농 체험이나 교육 활동을 제공하거나 학습 장애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특별한 요구를 가진 청소년, 농업 농촌에서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실제 사회적 농업 실천 현장에서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돌봄이나 고용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장도 있고, 불리한 여건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농장이 자연스럽게 돌봄의 기능도 하게 되지요. 운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정해,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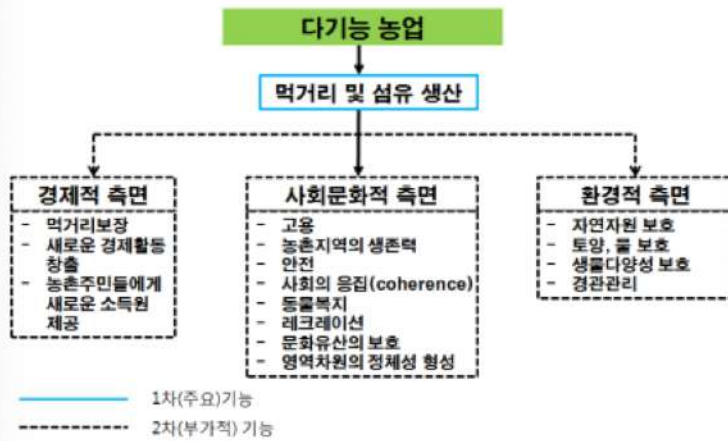
#### 나. 사회적 '농업': 다기능농업의 확산

사회적 농업의 핵심 주체는 농민입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에 있는 이들을 돕고 사회 통합을 지향하지만, 어디까지나 농업이 기본이 되어야 하죠. 사회적 농업은 사회복지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기관이나 병원, 요양원 등에서 농작업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농업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개인적이고 의료적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마을-지역사회라는 구체적인 생활 세계에서 이뤄지는 사람 사이의 관계와 유대가 사회적 농업의 바탕이 됩니다. 농민은 그저 농촌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써 농장 자원을 활용해서 불리한 여건에 처한 이웃을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것입니다. 보통 농민이 일상적인 농업 활동을 통해서 말이지요. 일례로 사회적 농업이 처음 등장한 이탈리아에서는 농업 관련 매출이 30% 이상 되는 사회적협동조합만 사회적농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이 대규모 자본이나 또 다른 기관에 전유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농업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기능농업(multifunctional agriculture)이란 농업이 먹거리를 생산(1차 주요 기능)하는 동시에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다른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다(2차 부가적 기능)는 개념입니다. 다기능농업은 지역에 기반을 둡니다. 지역사회를 새롭게 복원하려면 농업이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기능농업은 농가 차원의 활동을 넘어 지역의 농업/비농업 활동을 포괄합니다. 농업의 여러 기능은 지역의 정체성 발전에 기여하고, 영농 활동이 지역 경제로 통합되면서 지역 경제의 새로운 발전 동력이 된다(황수철, 2017)는 주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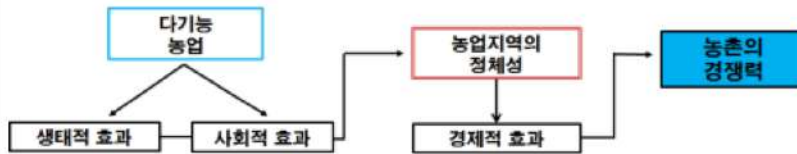
그림3. 사회적 농업의 대표적 유형

출처: 황수철, 2017에서 재인용



자료: Atkociuniene, Petruliene(2014)

그림. 다기능농업과 농촌경쟁력



자료: Mettepenningen, E. et al.(2011).

#### 다. 사회적 농업 '실천': 사회 혁신 촉진

사회적 농업은 농업 실천인 동시에 농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실천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농업은 다기능 농업과 지역사회 기반 사회 보전 돌봄이라는 두 개념에 기초합니다. (Di Iacovo&O'Connor, 2009; Hassink, 2009) 이는 전통적인 농촌의 자조 연결망self-help network을 반영합니다. 국가 복지 체계가 닿지 않는 농촌 구석구석, 한 마을 안에서 알음알음 서로 챙기고 돌봐온 비공식적 사회연결망과 농업 자원에 둔 서비스를 결합한 것이지요. (Di Iacovo&O'Connor, 2009)

이런 활동은 마음씨 착한 농민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농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안팎의 다양한 사람, 단체, 기관 등의 도움과 협력이 있어야 합니다.(김정섭, 2019) 사실 농촌 지역, 특히 면 단위는 정주기반과 서비스 여건이 매우 취약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서 병원이나 약국은커녕 구멍가게 하나 없는 면 지역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촌 지역 주민들은 낮은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와 지역 밖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요. 사회적 농업은 이러한 문제를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해결하고자 합니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나서 함께 학습하고 협력하면서 농업 영역과 고용, 복지,

교육 등 다른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를 넘나들고 확장합니다. 대상자별로 나뉘어 있는 사회 서비스를 지역사회 안에서 엮어내고 지역 주민이 스스로 돌봄의 주체가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없던 지역사회 내 새로운 연결망이 형성됩니다. 농민과 사회복지사, 의사, 교사, 공무원 등이 다양한 영역의 사람들이 만나는 자리가 만들어지지요. 서로 정보를 나누고 의견을 교환하고 함께 일을 합니다. 정부나 시장 등 기존의 제도에만 의존해서는 잘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을 시민의 참여, 다양성의 연결과 새로운 발상, 협동을 통해 풀어나가는 것을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이라고 정의(행안부, 2018)합니다. 사회적 농업이야말로 농업·농촌의 장점을 살려 지역사회 주민들과 농민이 스스로 새로운 기회, 공동의 가치를 창출해나가며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혁신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직되어 효용성만을 따지는 경쟁이 지배할 때 사무실과 길거리는 비인간적인 장소가 된다. 비공식적이며 열린 결말의 협력 작용을 촉진할 때 이곳들은 비로소 인간적인 장소가 될 거시다. ... 비공식적이고 열린 결말의 협력은 차이를 경험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 리처드 세넷 (지그문트 바우만, 2016에서 재인용)

## 2장\_돌봄농업 궁리하기: 기초 세우기

과연 내/우리가 돌봄농업을 실천할 수 있을까 이리저리 마음속으로 따져 깊이 생각해 보는 단계입니다. 농장에서 무언가를 해보고 싶지만,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하지요. 하지만 돌봄농업의 형태와 방법을 정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고민해볼 거리를 제안합니다. 돌봄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선배 농가의 이야기를 듣거나 우리 마을에 어떤 필요와 자원이 있는지도 살펴봐야겠죠.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돌봄농업 실천을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도우러 여기에 오셨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여기에 온 이유가 당신의 해방이 나의 해방과 긴밀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함께 일해봅시다.”

- 멕시코 차아파스의 어느 원주민 여성 (김도현, 2019에서 재인용)

### 1. 원칙

#### 가. 돈벌이가 아니라 관계

간혹 농사만 지어서는 큰돈을 벌 수 없으니 혹시 돌봄농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돌봄농업을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생각을 가장 먼저 깨뜨려야 합니다. 돌봄은 사고파는 대상이 아닙니다. 앞장에서 돌봄의 의미를 먼저 살펴본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웃으로써 농장에서 함께 만나고 일하고 어울리면서 마음을 나누는 일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실천과 농민 스스로 ‘할 수 있는 만큼’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돌봄농업을 하려면 많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농업 생산에 집중하지 못하니 소득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농민의 무조건적인 희생과 봉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 비용을 사회적으로 함께 부담하고 보전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지요. 농촌 사회의 공동체성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고 이를 지속, 확장하려는 지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직 없습니다. 돌봄농업 실천을 먼저 시작한 네덜란드나 이탈리아 등 몇몇 국가에서는 관련 법제와 지원정책을 마련했습니다.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농민들의 경험이 한참 쌓이고 난 후, 농민들이 먼저 힘을 모아 각계각층과 공동으로 학습하고 연대한 결과이지요. 돌봄농업 실천 농민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 나. 복지 서비스업이 아니라 농업

돌봄농업은 복지사업이나 서비스업이 아니라 농업입니다. 이전에도 체험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원예나 텃밭을 활용한 경우는 있었지만, 자연과 노작을 체험하는 한시적 장소와 프

로그램이었을 뿐이지요. 큰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기관 소유의 논밭을 이용자와 스태프가 함께 경작하고 거기에서 농업생산 소득도 창출된다고 칩시다. 그런 형태를 돌봄농업이라 할 수 있을까요? 돌봄농업은 농업과 마을을 기반으로 하고, 사회통합을 지향합니다. 물론 그 나름의 효과나 의미는 충분히 있겠지만, 아마도 농업의 일상적인 노동, 농촌 마을의 생활과 관계 속으로 스며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민철, 2019)

사회통합과 사회혁신을 이루는 방법과 경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지만 여타 산업과는 다른 농업과 농촌 마을의 고유한 가치를 결합했을 때 차별성이 드러나겠지요. 자립적인 농업 생산 기반은 큰 강점이 됩니다. 외부의 요구와 지원에만 의존한다면 예기치 못한 상황이나 변수에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은 독립적인 물적 토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나갈 힘, 화폐 경제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통합과 혁신을 상상할 힘이 됩니다. 사회적 농업에서 '농업'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농민 스스로 본래 농업 생산과 돌봄농업 실천 활동의 균형을 설정하고 유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 행복농장에서는 돌봄 활동 수입<sup>1)</sup>이 농업 생산 수입을 앞지르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소 5:5의 균형을 지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농업 관련 매출이 30% 이상 되는 사회적 협동조합만 사회적 농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사회적 농업의 실천 주체가 복지기관, 시설이 아니라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농민'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 다.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하는 일

돌봄농업을 하려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야 하지 않을까, 상담 공부를 할까, 아니면 원예치료사, 체험지도사, 웃음치료사, 꽃차 소믈리에 과정이라도 들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면 기존에 농사짓던 작목과 형태를 짝 다 바꿔서 사람들이 쉽고 좋아할 만한 다양한 작물을 심어야 하나 고민도 하시지요. 농장에서 사람들과 여러 활동을 잘하고 싶은 마음은 좋지만, 그렇다고 농민이 직접 사회복지사나 각종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농장 규모나 형태, 작목도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돌봄농업을 실천하려는 농민이 어떤 사람인가, 또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지요.

돌봄농업 실천은 마을과 지역에서 함께 하는 일입니다. 지역마다 사람마다 상황은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 농장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보다는 마을에 있는 여러 농장에서 많은 농민을 만나고 다양한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편이 더 좋습니다. 또 농민이 스스로 사회복지사, 전문가가 될 필요 없이 지역에 있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돌봄농업에 관여하고 참여하면 되겠지요. 개별 농장 안에서 완결성을 갖추려면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를 감당할 수 있는 농민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 번 강

---

1) 대부분 농림부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보조금입니다. 하지만 보조금 중에서도 강사비 등의 실제 농장 소득으로 돌아오는 비용은 아주 일부입니다.

조하지만, 돌봄농업은 참가자들에게 그저 쉽고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 아닙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소외되는 이 없이 서로 돌보며 다양한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넓혀가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돌봄농업을 하다 보면 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지역의 숨은 자원을 찾아내고 그 구슬을 꿰어야 하지요. 농장에 찾아오는 참여자뿐 아니라 지역의 여러 분야의 사람과 함께 논의하고 협업해야 합니다. 그동안 만나지 않았던 여러 분야의 사람을 새롭게 만나게 됩니다. 가끔은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독려하거나 엇갈린 의견으로 충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돌봄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개방적이고 유연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듣고 공감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고파는 대상이 되면, 자발적으로 남에게 시간을 내주는 사람, 낫선 이를 돕는 사람, 공공선을 위해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일하겠다고 나서는 사람, 아무도 안 볼 때도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사람,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덩달아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마치 속고 사는 듯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 로버트 커트너, 모든 것이 판매의 대상이 될 때 (낸시 폴브레, 2007에서 재인용)

## 2. 학습

### 가. 돌봄농업/사회적농업 알아보기

돌봄농업을 알기 위해 보통 가장 처음 하는 일은 인터넷 검색창에 '돌봄농업'을 입력해 보는 일이겠지요. 사회적농업이나 치유농업,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함께 검색하면 더 풍부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검색어 #돌봄농업 #사회적농업 #다기능농업 #치유농업 #농촌 사회적경제  
#농촌 생활돌봄 #농촌형 커뮤니티케어 #지역사회통합돌봄

신문기사 검색 [www.bigkinds.or.kr](http://www.bigkinds.or.kr)

사회적농업 온라인플랫폼 [www.socialfarm.kr](http://www.socialfarm.kr)

신문 기사나 블로그 글은 가볍게 훑어보기 좋습니다. 하지만 워낙 그 양이 방대하고 단편적인 정보나 단순한 사례 소개가 많습니다. 개념부터 실천 사례, 앞으로의 방향과 과제 까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관련 기관의 연구보고서나 세미나 자료 등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http://www.krei.re.kr)

##### [연구보고서]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 방향

김정섭, 안석; 이정해; 김경인 | 2017

농업은 원래 여러 사람들이 같은 밥상에서 함께 먹는 일의 시작이다. 먹거리 생산이라는 본래의 역할 외에도, 농업 활동과 결합하여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농업 활동에 내재한 치료적 요인을 활용해 아픈 사람을 돌보거나, 지식·기능이 필요한 사람에게 농업 분야의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의 실천을 사회적 농업이라 부른다.

주변을 둘러보면 사회에 통합되지 못한 채 남겨진 이들이 적지 않다. 빈곤하기 때문에, 민족이 달라서, 지적·신체적 장애가 있어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도시나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이들이 사회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일은 국가의 몫이자 국민 모두의 몫이다. 이제 사회 통합은 한국 사회 전체의 과제다.

제1장. 서론

제2장. 사회적 농업 논의의 지형: Q방법 조사 결과

제3장. 외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와 정책

제4장. 한국의 사회적 농업 실천 사례

제5장. 결론: 사회적 농업 정책의 방향

##### [연구보고서]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관계 부처 협업 방안

김정섭, 나현수 |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논의되는 다부문 간의 협력과 연계, 특히

정부 부처들 간의 협업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선행 연구 문헌을 검토하여 사회적 농업을 한국보다 앞서 활성화시킨 네덜란드, 이탈리아 국가들에서 사회적 농업 및 관련 정책이 어떤 경로로 발전했는지를 살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행정기관 소관 사회보장사업들을 검토하여 현장에서의 다부문 연계와 협력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따져보았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려면, 중앙행정기관들이 협업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제안하였다.

- 제1장. 서론
- 제2장. 사회적 농업의 혼종성과 사회 혁신
- 제3장. 사회적 농업 실천과 사회보장사업의 연계 가능성
- 제4장.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 구조 형성 전략
- 제5장. 결론

### [세계농업정보] 네덜란드의 사회적 농업

이윤정 | 2016

최근 국내에서는 사회적 농업(Social Farming), 특히 농업과 농촌의 “생산과 공간”이라는 기능의 다양한 형태로 치유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많은 국가에서 치유농업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고에서는 네덜란드의 치유농업과 사례에 대해 살펴본다.

- 제1장. 들어가며
- 제2장. 네덜란드의 치유농업
- 제3장. 네덜란드 치유농업의 사례
- 제4장. 시사점
- 제5장. 마치며

### 전북연구원 [jthink.kr](http://jthink.kr)

### [이슈브리핑] 농촌지역 생활돌봄과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황영모 | 2019

농촌지역은 대부분이 고령자인 원주민은 경제적·사회적 취약계층이며, 다문화 배경의 결혼 이민자와 귀농귀촌자 등의 이주민은 사회관계망에서 상대적으로 배제되는 사회문제를 안고 있음. 따라서 기존의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농촌사회’가 적극 개입하여 농촌주민의 ‘생활돌봄’을 채우기 위한 세밀한 프로그램이 필요. 과소화되고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여건을 고려할 때 농촌지역 ‘생활돌봄’을 담당하는 인력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귀농·귀촌 등의 청년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프로그램을 제안.

- 제1장.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필요배경
- 제2장.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대응방향
- 제3장. 농촌지역 생활돌봄의 정책구상
- 제4장. 생활돌봄 청년일자리 정책방안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치유농업 관련 자료를 꾸준히 발행하고 있습니다. 치유농업을 일종의 서비스, 프로그램, 비즈니스 모델로 접근하고 있어서 본 매뉴얼의 ‘돌봄농업’과는 지

향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국내외 사례나 운영 방법, 프로그램 등을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사회적농업, 치유농업으로 검색하면 아래 목록보다 더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lib.rda.go.kr](http://lib.rda.go.kr)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 2016

유럽 치유농장 운영 사례 | 2017

첫발을 내딛는 사회적농업의 다양한 실천사례 | 2018

치유농업 모델: 일본의 사회적 농업 돌봄 농장(Social farm) 실천 매뉴얼 | 2018

지역단위 치유농업 실천 매뉴얼 | 2019

사회적 농업을 주제로 하는 관련 단체에서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이나 단행본도 있습니다. 직접 연락하셔서 자료를 구매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모심과살림연구소 [www.mosim.or.kr](http://www.mosim.or.kr)

『모심과 살림 9호』 농촌, 생산 공간에서 삶의 공간으로 | 2017년 여름

#### 농정연구센터 [www.farp.info](http://www.farp.info)

『농정연구 63호』 사회적 농업의 이해 | 2017년 가을

#### 협동조합 행복농장 [www.happyhada.com](http://www.happyhada.com)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2017년 연속세미나 자료집

혹시 영어에 익숙하시다면, 활용할 수 있는 정보량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유럽에서는 돌봄농업에 관한 많은 연구와 경험 자료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래 농업 농촌 관련 주요 기관 홈페이지에서 #care farming #social farming으로 검색하면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요 연구자 #Jan Hassink #Francesco Di Iacov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UN [www.fao.org](http://www.fao.org)

European Network for Rural Development [enrd.ec.europa.eu](http://enrd.ec.europa.eu)

Social Innovation for Marginalised in Rural Areas [www.simra-h2020.eu](http://www.simra-h2020.eu)

SOFAR: A European Specific Support Action on Social Farming [sofar.unipi.it](http://sofar.unipi.it)

Social Farming [socialfarmyouth.eu](http://socialfarmyouth.eu)

[Netherlands] The Federation of Agriculture and care [www.landbouwzorg.nl](http://www.landbouwzorg.nl)

[Ireland] Social farming Ireland [www.socialfarmingireland.ie](http://www.socialfarmingireland.ie)

[UK] Social farms and Gardens [www.farmgarden.org.uk](http://www.farmgarden.org.uk)

## 나. 선배 농가 찾아가기

돌봄농업 실천 선배 농가를 찾아가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지역마다 농장마다 실천 주체와 운영 형태, 만나는 대상 등이 다양합니다. 일단 가까이에 있고 자신이 구상했던 돌봄농업 실천 방향이나 상황이 비슷한 곳을 잘 찾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바쁜 와중에 돌봄농업에 대한 이해 정도와 요구가 다른 방문객들을 맞이해야 하는 선배 농가의 입장도 잘 헤아려야 합니다. 방문 전에 돌봄농업과 농장에 대한 사전 학습은 기본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하면 줄줄이 나오는 단순 정보를 굳이 찾아가서 물을 필요는 없겠지요. 본인 소개와 방문 목적, 즉 궁금한 점이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제를 먼저 전달하면 좋습니다.

가장 마음 편히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곳은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는 2020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농장 중 경험과 역량을 갖춘 4개소를 거점농장으로 선정했습니다. 거점농장은 사회적 농업 현장 교육 및 네트워크 중심기관입니다. 사회적 농장 및 희망자에 대한 교육과 자문을 담당하고 사회적 농업을 확산하는 역할을 합니다. 거점농장에서 먼저 교육이나 상담을 받으면 더 필요한 정보를 얻거나 적절한 다른 농장을 소개받을 수도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지정

### |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

강원·충북권

농업회사법인 청년마을(주)

충북 제천시 덕산면 약초로 105-1 | 043-651-7651

facebook @dsyouthmaeul | instagram @ds\_youth\_maeul

경기·충남권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 홍성군 장곡면 홍장남로144번길 43 | 041-642-9990

happyhada.com | facebook @farmingforhappiness

전북·전남권

여민동락 영농조합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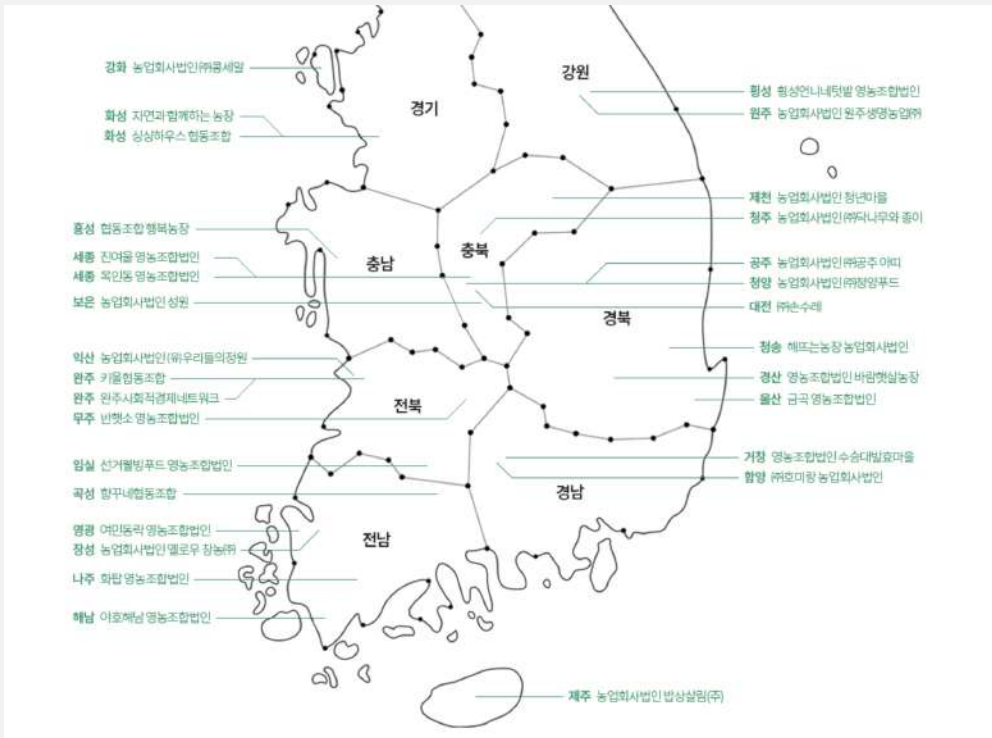
전남 영광군 묘량면 동삼로1길 95-36 | 061-353-1141

ymdr.tistory.com | cafe.daum.net/ymdr3531141

경북·경남·제주권

청송해뜨는농장 농업회사법인(주)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 농장]**



**다. 돌봄농업 참여하기: 자원봉사, 실습, 인턴십 등**

백문이 불여일견, 백각이 불여일행(百聞不如一見, 百覺不如一行: 백 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 깨우침보다 한 번 행함이 낫다)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보고 들어도 직접 경험해보느니만은 못하지요. 시간과 기회가 된다면 먼저 돌봄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마을이나 농장에서 자원봉사자나 보조 스태프, 인턴십으로 참여해볼 수도 있습니다. 1회보다는 일정 단계, 혹은 1년 흐름을 같이 하면 더 좋겠지요. 농업 생산과 돌봄 활동의 균형을 맞추는 운영 방식부터 참여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 과정과 마음가짐, 지역사회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법까지 말로는 전달할 수 없는 고갱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에 이미 돌봄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장이 있다면 네트워크 농가로 함께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초기에는 파일럿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참가자들을 한두 번 농장으로 초대해 보는 거죠. 만남이 익숙해지고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히면 이후에는 선배 농가의 도움을 받아 일정 시기 동안이나 일부 그룹을 담당해보면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경로도 있습니다.

### 3. 지역 조사

#### 가. 현장조사: 찾아가서 듣기

돌봄농업을 실천하려는 좋은 뜻과 의지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 의 실제 필요와 만나야 합니다. 물론 마을에 살면서 직접 겪은 어려움들, 만난 사람들로 부터 무언가를 해 봐야겠다는 마음으로 돌봄농업을 생각한 분들이 계시겠지요. 누구보다 마을의 문제, 이웃의 요구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지역의 문제와 욕구를 촘촘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지역의 여건이나 그간의 활동, 규범, 정책, 여러 주체 간의 관계 등등 돌봄농업 실천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확인해 봐야지요. 혼자 생각할 땐 미처 몰랐지만, 분명 돌봄농업 실천의 방향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지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충실한 방법은 마을 주민들, 이웃 농민들, 관련 단체 활동가 등 직접 찾아뵙고 꼼꼼히 여쭙고 끈덕지게 듣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의견을 듣고 정리한 후에는 비슷한 욕구를 가진 이들을 모아 간담회라거나 학습 모임을 조직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찾아낼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돌봄농업을 알리고 힘을 모으면서 관련 자원에 대한 정보와 동료, 협력 단체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 지역 조사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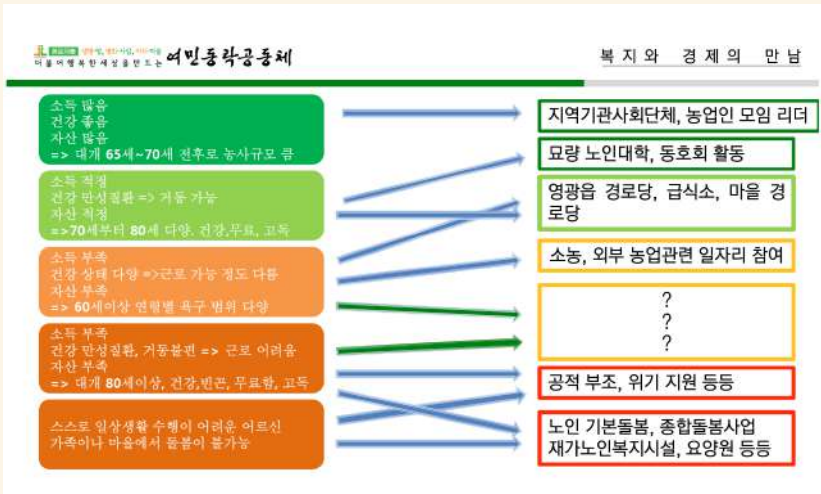
##### | 여민동락공동체 지원 조사 |

여민동락공동체(이하 '여민동락') 영광군 묘량면에서 처음 1년 동안 한 일은 '인사와 수다'뿐 이었다고 합니다. 마을 곳곳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드리고 이야기가 길어지면 그대로 앉아 이런저런 동네 이야기, 사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 자체가 '주민 되기'와 '마을 조사'의 과정이었지요. 그리고 또다시 6개월 동안은 묘량면 어르신 200세대 가정방문하면서 지역의 요구를 면밀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서 활동 계획을 세웠습니다. (강위원, 2017)

지역을 살살이 다녀보니 홀로 어렵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돌보는 일이 가장 시급했습니다. 2008년 재가 노인복지시설인 '여민동락 노인복지센터'를 먼저 시작했지요. 농촌 노인 복지를 생각하면 단순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여민동락에서는 지역 실태조사를 하면서 어르신들도 각기 상황과 욕구가 다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민동락은 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그치지 않고 비교적 건강하지만, 소득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스스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일자리 복지도 시작했습니다. 지역 휴경지를 임대해 영광군 특산품인 모싯잎과 동부콩을 기르고 그를 이용해서 모싯잎송편을 만드는 가공공장도 2009년 개소해서 운영했지요. 최근 지역에 모싯잎송편 공장이 많이 생기고 모시 가격이 하락하는 바람에 명절에만 생산하고, 주 재배 작목을 야생화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묘량면 42개 마을에서 어르신 40여 명이 일상적 농사 활동을 같이하신다고 해요. 2018년부터

는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 하우스를 지었습니다. 농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에도 선정되어 본격적인 농업 자립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도 농장을 찾아옵니다. 어른들과 청소년이 함께 농사일하며 관계를 연결하는 미래농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마을 경로당을 거점으로 마을 어른들이 돌봄 당사자로 참여하고, 외부 자원을 연결해서 여러 가지 생활건강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마을복지활동도 하고요, 이동식 생필품 구매협동조합 '동락점쟁 사회적 협동조합'도 운영합니다.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2019)

여민동락이 이렇게 다각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건 앞서서 마을 구석구석 훑으며 끈기 있고 진정성 있게 어른들 이야기를 들은 덕분이지요. 신중한 지역조사와 속의 과정, 그 가운데 얻은 지역 주민들의 신뢰와 애정이 여민동락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1. 여민동락 농촌복지활동의 기본 방향**

1) 치매, 중풍, 기타 만성질환으로 스스로 일상수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전문적 돌봄서비스 제공  
=> 재가노인복지센터(주간보호, 방문요양, 목욕)

2) 비교적 건강하지만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스스로 자립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거드는 일자리 복지를  
=> 농산물 가공(모시일승편 공장 떡생산 일자리), 농산물 생산 일자리(모시일, 동부콩 등 작목반)

3) 지역주민들에게는 건강한 마을과 서로 돕는 이웃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응원하고 주선하는 일에 힘을 보태는 것  
=> 주민 중심의 경로당 마을복지(품앗이학교, 장암산 마을학교) 활동, 노-노케어, 시기별 문화행사(김장, 물레산타)

그림 출처: 권혁범, 2019

## 나. 문헌 조사: 객관적 자료 모으기

지역의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 양적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이나 정부, 지자체에서 발표되는 자료들은 전체 농촌, 혹은 특정 도나 시군 단위만 다루고 그나마 정책 홍보 관련 내용이 많습니다. 면 단위 이하 지역 기초현황은 군청이나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에 직접 찾아가서 물어봐야 하지요. 어렵듯이 알고만 있던 지역의 문제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고, 타 지역과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되면 우선순위를 정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역에서 관계자를 만나거나 간담회, 토론회 등 모임을 가질 때 이러한 양적 자료를 먼저 공유하면 논의가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지역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구축하는 일이 지역조사 활동의 첫 단추가 될 수 있겠네요.

### | 지역 조사 참고 자료 |

#### @지자체 홈페이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읍면동의 인구 및 세대 현황, 행정구역, 면적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주별로 예정된 행사나 공식 회의 일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군구 홈페이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는 각종 사업 공고뿐 아니라 매년 각 부서별, 읍면동별 업무계획서와 사업 예산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군정 방향과 추진과제, 정책 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시도/시군구 통계연보

지자체에서 매년 통계연보를 발행합니다.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비교적 다양한 분야별 정보와 항목에 따라 읍면동 단위 현황까지 알 수 있습니다.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없으면 기획행정 관련 부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 시도/시군구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자체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과정에는 지역의 여건 진단, 사회보장 요구 및 지역문제 도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제4기(2018~2022)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욕구와 복지 수요 및 자원 현황, 현안 등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역시 시도/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시거나 복지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통계사이트

국가 통계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항목마다 확인할 수 있는 단위(시도/시군구/읍면동)가 다르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흥미로운 자료들이 많습니다.

통계청 [kosis.kr](http://kosis.kr)

나라지표 [www.index.go.kr](http://www.index.go.kr)

통계지리서비스 [sgis.kostat.go.kr](http://sgis.kostat.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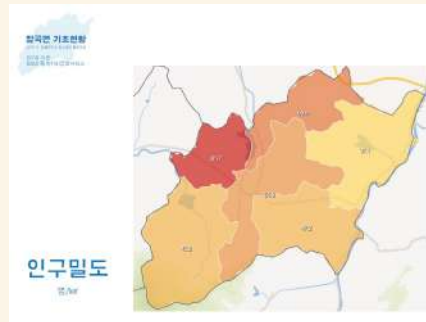
마이크로데이터통합서비스 [mdis.kostat.go.kr](http://mdis.kostat.go.kr)

사회보장통계 [ssc.go.kr](http://ssc.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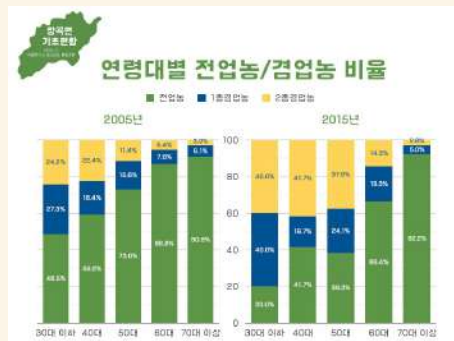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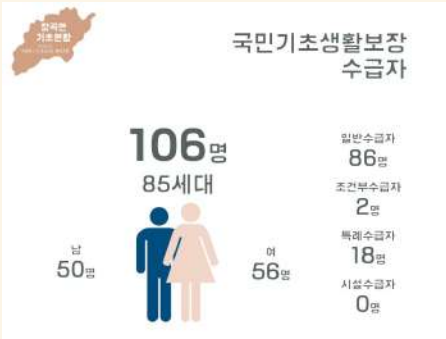
### 지역 기초현황 조사 예시

#### | 충남 홍성군 장곡면 |

위에서 소개한 통계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 단위 주요 현황 자료 조사 예시입니다. 어렵듯이 알고 있었던 지역의 상황과 변화를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또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역에서 무엇보다 해야 할지,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함께 협의하고 토론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논벼 재배농가와 농지 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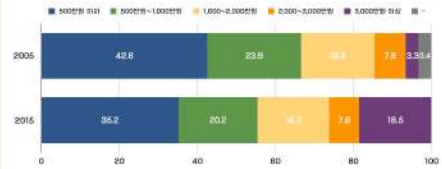
### 비닐하우스 재배면적/농가



### 한우 사육 현황



### 농가 소득 구간별 농가 비율



### 3장. 돌봄농업 실행하기

#### 1. Who 누가, 누구를, 누구와

“1년 농사를 지으려면 옥수수를 심어라. 10년 농사를 지으려면 나무를 심어라. 평생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을 훈육하고 가르쳐라.” - 옛 중국속담 (지구문트 바우만, 2016에서 재인용)

#### 가. 누가 할 수 있을까: 돌봄농업 실천 주체

돌봄농업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농장 규모나 재배 작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설을 갖추실 필요도 없구요. 어떤 자격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꼭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습니다.

돌봄농업 실천의 필요조건은 ‘농장’이라는 물리적 환경과 ‘농업’생산 활동입니다. 돌봄농업이 사회복지나 다른 사회적 경제 활동과 분명하게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돌봄농업의 실천 단위는 농사를 짓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영농활동을 하는 주체라는 원칙이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 어떤 뜻을 가졌는지, 누구와 함께하는지가 중요하겠지요.

돌봄농업 실천 주체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개별 농업경영체가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마을 단위로 경제사업을 하던 농촌체험휴양마을이나 영농조합법인이 돌봄농업 실천에 앞장서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 법인이 아닌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에서 농업 생산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중간지원조직에서 지역 농가들과 여러 관련 기관을 연결해서 조직적으로 접근하기도 합니다. (당사자 가족 유형 추가)

돌봄농업 실천 주체 유형			
개별 경영체 중심	마을 단위 공동활동	조직 단체 기반	지역 네트워크형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주) 닥나무와 종이	금곡 영농조합법인 화탑 영농조합법인	(주)콩세알 언니네텃밭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무주팜앤씨티
<p><u>개별경영체 중심</u> 진여울 영농조합법인   세종시</p> <p>일가족과 마을 주민 등이 2014년 함께 시작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주말농장을 운영해오다가 2019년부터는 중증장애 특수학교인 세종누리학교 고등부 학생들에게 농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농장에 취업하거나 가족과 함께 농사지으면서 살 수</p>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죠. 가까이에 있는 성남고등학교 학생들도 와서 누리학교 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진여울 농장이 장애 비장애 청소년들이 만나고 사귀는 장소가 되었지요.

**농업회사법인 (주)닥나무와 종이** | 충북 청주시 | hanjiroboto.com

(주)닥나무와 종이는 한지를 만드는 농업법인입니다. 이종국 작가는 오랫동안 닥나무를 직접 심어 관리하고 종이를 뜨며 여러 공예작품 활동을 했습니다. 농업과 농촌 문화 속에서 예술성을 발견하고 한지와 우리 문화를 알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종이 체험 학습을 운영하다가 차츰 지역으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 기록이나 지역 생태 변화 탐사 활동을 하기도 하고, 2019년부터는 닥나무 재배부터 닥종이 생산까지 마을에 사시는 치매 어르신, 학교밖청소년, 귀농 청년 등 이웃과 함께 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마을 단위 공동 실천

**금곡 영농조합법인** | 울산광역시 울주군 | blog.daum.net/gnbioland

울산 금곡 영농조합법인은 2007년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 교육농장을 운영해왔습니다. 마을 식당, 숙소 등 공간을 활용해서 제철 농사 체험, 요리체험, 목공 체험 등 여러 가지 체험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도시민, 아동 대상으로 일회적인 체험 프로그램만 진행하다 보니 허탈함을 느끼던 차에 지역 장애인들이 농업 체험 활동을 하며 만족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돌봄농업 실천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들이 자립하여 공동생활 가정을 이루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화탑 영농조합법인** | 전남 나주시 | www.hwatop.co.kr

전남 나주 화탑마을 역시 2008년 배 테마 마을 사업을 시작으로 녹색농촌체험마을,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을 통해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마을 만들기 활동을 추진하던 곳입니다. 마을 주민 모두가 조합원인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서 농축산물 직판사업과 체험농장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농조합법인의 대부분 직원은 마을 주민이고요, 매출의 5%를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고 소득의 10%만 배당, 나머지 영업이익을 지역 노인과 장애인 문화복지 활동과 일자리 제공과 자립 지원에 쓰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조성한 허브 가든을 지역 장애인복지관의 발달장애 학생들과 함께 가꾸며 진로교육과 원예치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교육생 중 일부를 농장과 영농조합법인에서 고용할 계획입니다.

### 조직 단체 기반

**농업회사법인 (주)콩세알** | 인천 강화 | www.kong3al.com

콩세알은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입니다. 작은 일일생산공동체로 시작해서 2006년에 국내 최초 무첨가 두부를 생산하고, 2008년에는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고 2012년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하며 거듭 발전해왔지요. 강화도 친환경작목회 지

원, 독거노인과 지역아동센터 식자재 무상지원, 도농 교류 체험장 운영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자립,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성공한 대표적 농촌형 사회적 기업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2019년 현재 20여 명이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대안학교와 협력하여 장애 가족농장을 운영하고 농업 체험,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니네텃밭 영농조합법인** | 강원도 횡성 | [www.sistersgarden.org](http://www.sistersgarden.org)

언니네텃밭은 2009년 전국여성농민회 식량주권사업단으로 출발했습니다. 횡성여성농민회와 한살림이 출자해 '텃밭두부공장'을 설립하고, 할머니들이 대를 물려 심던 토종 씨앗으로 재배한 농산물로 2009년 꾸러미 사업을 시작했지요. 언니네텃밭 꾸러미는 이후 횡성뿐만 아니라 김제와 상주, 제주, 나주 등 전국 규모로 확장되어 전국 13개 공동체, 120여 명의 여성 생산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해고 노동자, 노숙자 쉼터, 한부모 가정, 재정이 어려운 단체 등과 먹을거리 나눔도 지속해왔지요. 여성 농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 청소년들에게 농업과 인문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중간지원조직 주도 네트워크 형태

**사회적협동조합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 전북 완주 | [wanjoocoop.com](http://wanjoocoop.com)

완주군은 커뮤니티비즈니스, 로컬푸드 등 공동체 기반 협동경제가 활발합니다. 현재 300여 개에 달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활동하고 있지요. 2018년에는 이들 공동체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협력을 위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출범했습니다. 그리고 이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서 완주군의 사회적농업/돌봄농업 실천을 기획, 조직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2009년 지역의 고령자와 귀농귀촌인들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조성한 두레농장 네 군데를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재할, 돌봄 관련 협동조합들과 지역공동체 조직이 함께 발달장애 아동 가족 농장을 운영하고 지역 노인들이 소정의 인건비를 받으며 멘토로 참여합니다. 독거노인, 청년, 여성, 귀농인들이 참여하는 농장도 있지요. 이들 두레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은 완주 로컬푸드매장에서 판매합니다.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앤씨티** | 전북 무주 | [blog.naver.com/mujumaeul](http://blog.naver.com/mujumaeul)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앤씨티는 무주군에 있는 4개의 개별 경영체가 참여하는 네트워크 형태의 조직입니다. 한우농장을 경영하는 반햇소영농조합법인과 시설하우스에서 토마토 농사를 짓는 진원반디길마을영농조합법인, 노지 채소농장을 짓는 호롱불마을영농조합법인, 교육농장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무주 정원산책이 함께하고 있지요. 중간지원조직인 무주군마을공동체지원센터 안성면공동체활성화지원단에서 이들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활동가들이 각 농장을 담당하면서 돌봄농업 실천을 돕고 있습니다.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 지역 내 학교 특수반, 지역아동센터, 무주군 새마을부녀회와 협력해서 지역 청소년과 장애인의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나. 누구를 만날까: 돌봄농업 참여자

농장에서 누구를 만날까 하는 문제는 돌봄농업 실천 결심 동기와 맞닿아 있습니다. 본인의 전공이나 관심사, 가족이나 이웃의 관계, 지역사회 문제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혼자 구상한 돌봄농업의 형태와 지역의 필요, 참여자의 욕구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돌봄농업 실천 농가들에서도 우연찮은 기회나 인연이 닿아 돌봄농업을 시작했는데 이를 지속해서 혹은 확대하려다 보니 지역에서 사람 모으기가 어렵다고 토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조사가 필요하지요. 지역의 필요를 조사하고 주민들과 함께 학습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돌봄농업 참여자와 협력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돌봄농업의 대상자 자격 요건은 없습니다. 자격 기준을 정하고 제공하는 복지서비스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공공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사회의 연결과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기에 더욱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지요. 농촌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어르신 돌봄이 시급합니다. 특히 면 지역의 고령화와 과소화가 심각합니다. 홍성군 장곡면의 고령화율은 46.2%로 압니다. 2017년 한해 4명이 태어나는 동안 60분이 돌아가셨어요. 고독사나 자살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충남 지역 자살률은 29.8%로 도시 지역보다 훨씬 높아요.(2018년 사망원인통계) 가족과 떨어져 오랫동안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요, 평생 농사일을 하시다가 몸이 아프면 고독감과 무력감, 경제적인 어려움 등이 겹쳐 우울증으로 이어지기가 쉽지요. 고령자가 많은 이유도 있지만, 농촌 지역 장애인 비율도 높습니다. 하지만 농촌 지역에는 의료복지기관이나 재활 훈련교육 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프라가 있는 읍내로 나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채용과 인력 부족으로 개별적인 복지서비스 역시 그 질을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농촌의 아동 청소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있는 교육문화시설은 읍 지역에 집중되어 있지요. 영화나 공연 한 편 보려고 해도 인근 대도시로 나가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1면 1교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지만 중학교만 돼도 읍내로 통학하거나 아예 기숙사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와 문화 차이,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주여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농업 이주노동자 역시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입니다.

한국사회 사회적 배제계층의 구분   출처: 김태수(2009)		
기준	구분	특징
전통적인 사회경제적 배제계층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대상자
	저학력(학업중단) 청소년	교육제도에 의한 재통합 불가
	저숙련 노동자	저숙련 저임금으로서 실업과 취업 반복
	여성취업자	전통적 가부장적 문화에 의한 차별

노동시장 배제계층	장기실업자	구직실패의 낙인효과로 빈곤전락 위험
	비정규 근로자	노동보호정책 시급
특수 취약계층	학령기 장애인	특수교육기회 부족
	성인 장애인	자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기회 부족
	수용자	전과기록으로 특별배려 필요
한시적 취약계층	북한이탈주민	합법적 난민의 지위
	외국인 근로자	불법체류 시 특히

한편 외부로부터 요청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인을 통해서나 언론 보도를 보고, 또는 관련 기관의 소개를 받아 문의해오는 경우가 있지요. 인근 도시 지역의 특수학교나 장애인복지관, 요양시설, 교도소, 노숙인 쉼터나 공동가정, 대안학교, 상담센터, 여성쉼터, 교육지원청 위wee센터, 자살예방센터 등등 쉼과 회복, 연대가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이때 농장 입장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어디까지 함께 할 수 있을지 천천히 만나고 가늠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 행복농장에서는 2016년 외부의 요청으로 여러 유형의 참여자들을 만났습니다. 정신장애인, 미혼모 청소년, 노숙인, 자살유가족, 탈북청소년, 발달장애 가족, 번아웃증후군 소방공무원 등등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씩 농장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요. 그런데 하다 보니 고민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라 농작업 때를 놓치기 일쑤여서 농장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하도 여러 대상을 만나다 보니 고민과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형식적인 진행에 그칠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행복농장은 2017년부터는 충남정신건강복지센터, 장곡초등학교 등 지역 기관과 연계한 돌봄농업 활동만 유지하면서 외부의 요청에 의한 프로그램 진행은 최소화하고 내부 생산기반을 다지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정도 생산기반이 안정되고 기존 협력 기관과의 신뢰가 쌓인 후에야 새로운 시도와 만남에 힘을 쏟을 수 있었어요.

## 다. 누구와 함께할까: 마을과 지역의 협력

### 1) 돌봄농업 협력운영 기관 단체

개별 농가가 처음부터 참여자와 직접적으로 만나고 무언가를 함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을에서 원래 알고 지내던 몇몇 분 정도는 가능하겠지요. 하지만 그 이상을 생각한다면, 특히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 특정 질환이나 요구를 가진 참여자를 만날 경우 관련 기관 단체의 협조 없이는 프로그램 추진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지역 내 보건소나 복지관, 각종 지원센터 등과 협력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사전에 협력 운영 기관 단체와 충분히 대화하면서 서로의 기대와 목표, 역할을 조정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단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급자-수혜자 관계로 굳어질 수 있지요. 돌봄농업 실천이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혹은 지불하지 않고) 구매하는 ‘상품’에 그치고 맙니다. 사실 그동안 관련 기관에서 진행해왔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그러할 것입니다.

협력운영 기관단체 실무자가 돌봄농업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 좋습니다. 이동 중 안전이나 지속적 참여 관리를 담당하고 예기치 못한 응급 상황이 발생하거나 개별적인 케어가 필요할 때 전문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농업 활동을 하면서 참가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관찰하기 때문에 농민과 함께 성과를 평가하고 대상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돌봄농업을 직접 경험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농가와 단체 간 신뢰가 쌓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개별 참여자의 심화 활동이나 고용, 자립 생활 지원이나 기타 정책 연계 등을 같이 논의할 수도 있습니다.

| 돌봄농업 실천 협업 기관 단체 찾기 |

읍면동 단위	시군구/시도 단위	민간 영역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역사회복지관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애인종합복지관,
지역 초등학교 특수학급	지역자활센터	장애인보호작업장,
지역아동센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노인종합복지관,
면내 각종 기관단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인복지센터, 요양병원,
등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동생활가정 등)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등	

2) 마을주민, 자원봉사자, 네트워크 농가

돌봄농업 실천의 가장 중요한 협력자는 바로 마을 주민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마을에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도 돌봄농업의 유익이 돌아가면 좋습니다. 돌봄농업을 실천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나 자원을 활용해 마을과 함께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돌봄농업 참여자들과 함께 준비하는 마을잔치, 문화공연을 열어도 좋고요, 함께 나들이를 가기도 합니다. 마을 주민 대상 무료 검진이나 먹거리 나눔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돌봄농업을 함께 실천하면서 가까운 이웃과 지역사회를 돌보는 보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돌봄농업 활동에 보조 진행자나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제안하고, 주민의 장기를 살려 특별 활동 강사로 모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와 협력해 특정한 시기 마을의 이

웃농장에서 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틈틈이 다른 돌봄농업 실천 사례나 사회적 농업을 함께 학습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든든한 동료가 되어갑니다.

### 지역 협력 사례

#### | **협동조합 행복농장, 마을과 함께하는 자연구시** |

협동조합 행복농장에서는 매년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와 함께 지역 정신장애인을 위한 농촌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자연구시' 기본과정을 운영합니다.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며 자립을 준비하는 분들이 4박 5일 동안 행복농장의 농업과 마을 생활을 경험하는 프로그램이지요. 회당 보통 10명 안팎으로 참가하고, 센터 실무담당자 2~3명이 결합합니다. 참가자 모집 홍보와 선정, 상담 및 저녁 프로그램 진행, 사후 사례관리는 센터에서 담당합니다. 행복농장에서는 4박 5일 농업 실습과 마을 공동체 활동, 나들이 등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기본과정을 진행한 다음에는 센터와 행복농장이 함께 자연구시 심화과정 참여자 선정과 이후 인턴십, 고용 연계 등을 논의하지요.

하지만 실제로 자연구시가 진행되는 4박 5일 동안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직원들과 행복농장 스태프 외에도 많은 주민이 함께 합니다.

행복농장은 생산활동을 병행하기 때문에 자연구시를 진행하는 동안 행복농장 주 담당자 외에 돌봄농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다른 농민이 보조진행자로 함께 합니다. 행복농장 네트워크 농가로 협력하고 이후에 독자적으로 본인 농장에서 돌봄농업을 실천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요.

4박 5일 중 일부는 이웃한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이나 옥계열매농장, 라라 농장 등에서 농업 활동을 합니다. 다른 작목도 경험해보고 자연히 다른 농부들도 만나게 되지요. 자연구시 기간과 모내기나 사과꽃을 따는 시기, 밤을 줍는 시기 등이 겹쳐서 이웃 농가로 특별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풀을 베서 유산양농장에 돌려 가기도 하고요. 가끔은 주민들과 함께 마을 저수지 청소나 화단 정리를 하는 등 마을 울력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에서는 숙박과 식사를 담당합니다. 마을 한옥을 리모델링한 예절교육관에서 지내는 동안 매일 한옥 가족,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사무국 식구들을 만나게 됩니다. 마을 부녀회에서는 매일 정성으로 식사를 준비해줍니다. 맛있게 잘 먹었다는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지요.

한옥집에서 머무는 동안 마을 주민 중 한 사람이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해 당직을 섭니다.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가는 날에는 또 다른 마을 주민이 운전해주시고요. 마을 요가 선생님은 매일 농작업 후 시간을 마련해 참가자들이 몸을 풀 수 있게 요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을에서 사진 찍는 청년은 농장 활동 기록으로도 남기고 참가자들이 나중에 추억할 수 있도록 멋진 사진을 찍어줍니다. 4박 5일 과정을 틈틈이 관찰하고 기록해서 보고서 작성과 평가를 돕는 마을 주민도 있습니다. 지난 자연구시에는 클래식기타를 전공한 마을 청년이 자연구시 참가자들을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기도 했어요.

해를 거듭해갈수록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자연구시에 참여하고 협력하는 지역 주민, 농가, 단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2. When: 언제, 얼마나

삶을 더욱 충만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들의 수가 아니라 지속성의 경험이다. - 한병철, 2013

### 가. 걱정 규모와 횟수

흔히 농부는 주말도 없고 출퇴근 시간도 없다고 말합니다. 해가 뜨면 집을 나서고 한낮의 뜨거운 해는 잠시 피했다가 다시 해 질 녘까지 밭일을 하곤 합니다. 비 오기 전날엔 엄청 분주하다가 비 오는 날은 조금 한가해지고요. 또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바쁜 철이 있고 아예 일이 없는 계절도 있습니다. 언제 얼마나 일할지는 오로지 하늘의 뜻과 농부 마음먹기 나름이지요. 하지만 돌봄농업을 하려면 계획이 필요합니다. 농장에서 만나는 날과 시간을 약속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본인의 영농과 생활 방식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시간과 에너지를 돌봄농업 실천에 쏟아야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참 다르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4명 이상 소그룹이 농장을 방문해서 활동한다고 했을 때 보통 일반 농가에서는 처음부터 매일매일 돌봄농업 활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농장에서 만나는 경우에는 신경 쓰고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지요. 하루 두 시간 만남을 위해 온종일 준비하고 뒷정리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농장의 일상, 제때 해야 하는 농사일을 놓치기 쉽습니다. 숨 돌릴 틈 없이 하루가 지나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집니다. 돌봄활동 준비와 정리, 만남에 충실하기도 어려워집니다. 한 사람이 오더라도 매일 하루종일 함께 하기는 생각보다 부담이 큼니다. 혼자서도 알아서 농장 일을 척척 해내는 숙련된 일꾼이 아니라면요. 알려주고 안내하고 챙겨줘야 하지요. 가끔 개인적인 업무가 생기면 이 사람을 어찌하고 가야 할지, 혹은 몸이 안 좋아 간절히 하루 쉬고 싶어도 마음 놓고 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어느 정도 규모의 인원과 어떤 빈도와 밀도로 만날 수 있을지 농민 스스로 가늠하고 조정해야 합니다.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는 일회성이나 단기로 만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돌봄농업을 실천할 때에는 장기간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관계 맺는 것이 좋습니다. 협력 운영기관과 농장, 참여자의 상황을 고려해서 협의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길게 매주 만나는 것보다는 2~3개월 과정으로 매주나 격주 4~8회차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다시 이후 활동을 계획해볼 수 있으면 좋고요. 너무 춥고 더운 때(1~2월/7~8월)와 명절 연휴 등을 빼면 격주 16회차나 매주 32회차로 한해, 한 순환 작기를 함께 해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업 교육이나 고용을 염두에 둔 만남이라면 단기간 한 계절만 만나는 것보다 1년 4계절을 함께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연중 활동 계획

돌봄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서는 1년 일정을 디자인해야 합니다.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일이 몰리거나 없는 때가 있지요. 또 너무 뜨거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참여자들의 체력과 안전을 배려해서 적절한 작업과 시간을 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봄농업 선배 농가들에서는 텃밭을 만들어 참여자들과 가꾸거나 차츰 다품목 재배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마을 여러 농가가 함께 참여해서 철마다 돌아가며 진행하기도 하고요. 꼭 농장일 뿐 아니라 농장 주변 마을 풀을 깎거나 나무를 심거나 화단을 가꾸는 일, 마을 회관이나 공동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일을 같이하기도 합니다. 재배한 농산물을 활용해 잼이나 피클, 두부, 콩나물, 떡, 한과, 장아찌, 효소 등 가공을 겸하는 농장에서는 농한기 일거리가 항상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농장에서 직판장, 카페,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목공소, 공방, 자전거 수리점 등을 직접 운영하면서 참여자들과 함께 다양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한 농가가 모든 걸 다 하기는 어렵겠지요. 결국 또 지역이 함께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귀결되네요.

## | 연중 활동 계획하기 |

### 연중 생산

예비 청년 농부를 교육하는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에서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 365일 일거리가 있는 시설 하우스 쌈 채소를 재배합니다. 농사짓는 몸과 하루, 1년의 리듬을 익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쌈 채소는 파종부터 수확까지 작기가 짧기 때문에 농사의 전 과정을 여러 번 연습할 수 있습니다.

### 영농 다각화

보은 성원농장에서는 양봉과 대추 농사를 짓는데요. 양봉은 5~6월, 대추농사는 10~12월 바짝 바쁩니다. 발달장애 학생들 농업 교육을 하면서 나중에 고용을 목표로 하다 보니 대추 농사만으로는 연중 고용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양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들과 함께 텃밭을 일궈서 무, 배추를 심고, 김치를 담가 지역 독거 어르신들과 나누기도 했는데요. 2020년부터는 아예 직업훈련 과정 삼아 본격적으로 무, 배추, 고추 등 김장 작물을 재배하고 판로를 개척할 예정입니다.

### 농가 네트워크 구축

울산 금곡영농조합에서는 마을 어르신들과 청년활동가와 같이 발달장애 청년들과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날이 뜨거운 7~8월에는 어쩔 수 없이 참여가 저조하고 흥미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 해부터 마을의 보리수 농장, 옥수수 농장, 옆 마을 아로니아 농장과 함께 철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활동을 기획했습니다. 참여자들이 다양한 작목과 농장을 경험하면서 적성과 흥미를 찾는 기회도 되지만, 여러 농가가 돌봄농업 실천을 함께하면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 3. WHERE\_ 장소로서의 농장과 마을

장소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과거의 어떤 경험과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가지는 관심 이상이다. 즉, 장소는 자체의 특성과 그것이 당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의미 때문에 장소에 대한 진정한 책임과 존경이 존재한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대한 전적인 관심,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느 것 못지않은 심오한 관심이 거기에 있다. 소중히 한다는 것care-taking은 실제로 '인간이 세계와 맺는 관계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

잉글랜드의 지방행정 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고향'에 대한 애착은 그 지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에, 그런 애착은 주로 "개인이 그곳의 물리적 환경과 맺는 관계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맺는 상호 작용과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서 위원회는 장소란 곧 본질적으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고, 장소의 외관이나 경관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배경에 지나지 않는다는 일반적인 관점에 동의한 것이다. - 에드워드 랠프, 2005

#### 가. 자연의 품

사람들이 농장에 와서, 아니 어쩌면 농장에 오기 위해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가장 충만하게 느끼는 것은 자연과 생명입니다. 오늘 날씨가 어떤지, 계절의 흐름에 따라 풍경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길가 들꽃의 자태부터 농장 작물의 자람까지 자연의 변화에 감흥을 느낍니다. 농장 활동을 마친 후 소감을 나누다 보면 여기 와서 편안하다, 꽃이 예쁘다, 공기가 좋다, 평화롭고 행복하다, 시원한 바람에 답답함이 풀렸다,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을 봐서 반가웠다, 작물이 잘 자라서 뿌듯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자연환경은 그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요리하고 먹거리를 나누는 과정에서 서로 적극적으로 돌보는 관계가 됩니다. 생명의 순환과 자연의 흐름은 사람들에게 지금 변화할 수 있는 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기를 주기도 합니다. 자연히 자연에서 받는 선물이 가장 크고 좋지요. 참여자들이 농장과 농장 주변의 자연환경을 잘 가꾸며 애정하고 향유할 기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나. 만남의 장소

농장은 '만남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 산속 외떨어진 곳보다는 마을 가까이에 있는 게 좋습니다. 참여자들이 이동하고 접근하기 편한 위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주민들을 만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요, 지나가던 어르신들이며 베테랑 농부들이 저마다 훈수를 두고 어려운 작업은 도와줄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습니다. 자연뿐 아니라 사회 접촉 기회도 늘리는 셈입니다. 물론 쉽고 안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참가자들에게는 또 다른 배려가 필요하겠지요. 네덜란드 돌봄농장 중에는 지역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부가적인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농장에서 생산한 작물뿐 아니라 지역 농산물이나 가공품을 모아 직매장을 운영하거나

카페나 식당을 열기도 하고요. 농장 안에 회의실이나 숙소를 만들어서 대관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마을 정원을 가꾸어 사람들이 꽃을 꺾으러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일을 돌봄농업 참여자들이 함께하지요. 직접 주문을 받고 서빙도 하고 계산을 하고 청소를 하면서요. 지역 주민들은 느긋하고 느그러운 마음으로 농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감사히 받습니다.

그렇다고 농장 안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회의실도 게스트하우스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닌걸, 이제는 아시겠지요? 돌봄농업 활동을 개별 농장을 넘어 마을로, 지역으로 확장하면 되는 일입니다. 돌봄농업 프로그램 안에서도 참여자들이 식사를 해야 하고, 어떨 땐 숙박을 해야 할 때도 있지요.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개별 프로그램을 진행할 공간도 필요하고요. 농촌 지역에는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등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대형 강당이나 회의실, 식당, 숙소 등을 잘 갖춰놓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공간들이 많지요. 단순히 돈을 주고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는 마을 식당과 숙소, 공간을 운영하는 지역 주민들과도 돌봄농업을 함께 한다는 지향을 갖고 만나도 좋겠습니다. 돌봄농업을 설명하고 사람들을 소개하고 서로 얼굴을 알고 다음에도 또 만나는 사이가 되는 거지요. 관계 속에서 필요를 해결하고 없는 것들은 차근차근 함께 만들어가면서요.

### 지역 협력 사례

#### | 협동조합 행복농장, 돌보는 농부학교 |

행복농장에서는 2019년부터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돌보는 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성인 만성정신질환자 회원분들이 행복농장으로 찾아오시지요. 농업 활동을 통해 일상생활 기능 향상을 돕고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입니다. 회원 17분과 센터 담당자 2명이 농장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월부터 11월까지 월 2회씩, 무더운 7~8월에는 쉬었으니 1년에 총 14번을 만났습니다.

회원들 대부분 홍성읍내에 거주하기 때문에 행복농장에 오려면 30분가량 시내버스를 타야 합니다. 센터와 농장 승합차를 활용할 수 있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일종의 훈련 과정으로 생각했습니다. 장날이라도 겹치면 복적대는 버스 안에서 할머니들이 나누는 안부를 엿듣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즈음에는 하교하는 학생 무리를 만나기도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흙이 묻어도 괜찮고 움직이기 편한 작업복으로 갈아입습니다. 다행히 농장 가까이 있는 오누이센터 강당과 다용도실, 넓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환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누이센터는 마을 권역 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입니다. 도서관 겸 강당으로 사용하는 다목적회관과 사무동이 있습니다. 사무동에는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 장곡마을학교, 청년농부작업장 온, 마을연구소 일소공도 등 마을 단체 사무실들이 입주해있어요. 단체 실무자들뿐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젊은협업농장과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사

람들, 마을 주민들이 늘상 들락날락합니다.

돌보는 농부학교 활동은 기본적으로 행복농장 하우스와 오누이센터 앞 공동 텃밭에서 이뤄집니다. 원래 유지되었던 공동텃밭은 행복농장 돌보는 농부팀뿐 아니라 장곡마을학교 학생들, 일부 마을 주민들도 함께 가꾸는 공간입니다. 원예 프로그램이나 공예 활동, 몸풀기 요가와 소감 나누기 시간에는 오누이센터 강당을 활용합니다.

점심은 행복부엌에서 먹습니다. 행복부엌은 사실 행복농장에서 요리체험장으로 조성한 공간 인데요, 일부러 농장 안에 두지 않고 오누이센터 옆에 지었습니다. 2018년 장곡면에 있던 협동조합 식당이 임대료 상승으로 영업을 중단한 이후부터 인근 단체 실무자들과 이웃 농부들이 매일 행복부엌에서 점심을 먹습니다. 도산2리 이장 사모님을 비롯한 부녀회에서 점심을 준비해 주세요. 또 봄가을이면 젊은협업농장에서 교육을 받는 청년 농부들, 대안학교 학생들, 오누이 마을을 찾은 견학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한참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요리 활동이 있는 날도 행복부엌 한편에서 진행하고 완성한 요리는 이웃들과 나눠 먹습니다. 어쩌면 회원들은 읍내에서 지낼 때보다 행복농장에 오는 날 더 많은 사람과 인사하고 대화하고 접촉하였는지도 모릅니다.

2019년 한해 마무리 평가에서 참여한 회원들이 즐거움, 보람, 안정감을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주민분들, 특히 맛있는 점심을 해주신 어머니들께 감사함을 표현했습니다. 회원들의 요청으로 센터와 농장이 협의하여 격주로 진행하던 활동을 2020년부터는 7~8월에도 쉽지 않고 매주 진행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회원 중 2명은 장애인고용공단 지원으로 행복농장 인턴 과정 밝기로 했습니다.





### 다. 편안하고 안전한 공간

농장은 기본적으로 작물을 키우는 곳이지만, 다르게 보면 사람이 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알뜰한 농부들은 한 뼘 땅도 아낀다지만, 이랑과 고랑의 폭과 간격만 봐도 농부 스스로, 혹은 함께 일하는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돌봄농업을 하면 여러 사람이 농장에 찾아옵니다. 아무래도 혼자 일할 때보다는 공간 단장에 신경을 써야 하겠지요. 주차장과 화장실이 얼마나 가까운지, 일하다 잠시 앉아서 목을 축일 공간은 있는지, 뜨거운 햇빛과 비바람은 어디에서 피할지, 여러 사람이 쓴 농기구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지 등등 신경 써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체구가 작은 어린 아이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신체장애인을 만날 때는 준비할 게 더 많아집니다. 문턱이나 계단, 경사면, 테이블 모서리, 의자 높이, 농기구 사용 등 특히 안전 문제를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한 번에 농장 환경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안전과 관련된 사항부터 정비해야겠지요.

‘성별이나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제품 및 사용 환경을 만드는 디자인’을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이라고 합니다. ‘모두를 위한 디자인 Design for All’ 또는 ‘범용汎用 디자인’이라고도 불리죠. (두산백과) 저상 버스나 오디오북, 유도 블록, 꺾인 빨대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돌봄농업을 하는 농장 환경이나 마을의 공동 공간을 설계할 때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참고해봐도 좋겠네요.

#### |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 |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출처: 위키백과

#### 원칙 1. 공평한 사용 Equitable Use

: 장애나 능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시장성이 있도록 디자인한다.

- 모든 사용자가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가능하다면 동일하게, 그게 안된다면 동등하게.
- 어떤 사용자 집단을 다른 집단과 구분하거나, 낙인을 찍지 않는다.
- 모든 사용자에게 프라이버시, 보안, 안전이 동등하게 제공되도록 한다.
- 모든 사용자의 마음에 들도록 한다

#### 원칙 2. 사용상 유연성 Flexibility in Use

- : 개인 선호나 장애, 능력과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맞출 수 있도록 디자인한다.
- 사용자가 여러 사용 방법들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왼손잡이든 오른손잡이든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사용자가 정확성과 정밀성을 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사용자의 보폭이나 속도에 맞출 수 있도록 한다.

#### 원칙 3.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 Simple and Intuitive Use

- : 사용자의 경험이나 지식, 언어, 집중도와 무관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디자인한다.
-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지 않게 한다.
- 사용자의 기대와 직관에 부합하게 한다.
- 사용자의 읽기 능력이나 언어 종류와 관련하여 넓은 범위에 맞출 수 있게 한다.
- 중요한 정보부터 먼저 알아챌 수 있게 배치한다.
- 처리를 하는 중에 그리고 처리한 후에는 그것을 알 수 있게 표시하고 피드백을 제공한다.

#### 원칙 4. 알아챌 만큼 충분한 정보 Perceptible Information

- : 사용자의 감각 능력이나 환경 조건과 무관하게 사용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디자인한다.
- 필수 정보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여러 방식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그림으로 표시하고, 소리로 알려주고, 만져서 알 수 있게 하는 등.
- 필수 정보와 부가 정보가 적절히 대비되도록 한다.
- 필수 정보에 대해 판독 가능성을 극대화한다.
- 묘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요소들을 차별화한다. 즉 어떻게 하라고 하거나, 방향을 가리키는 것을 쉽게 한다.
- 감각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사요하는 다양한 장치나 도구에 상응하도록 한다.

#### 원칙 5. 실수를 감안 Tolerance for Error

- : 사용자가 잘못 쓰거나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하더라도 위험이나 역효과가 최소가 되도록 디자인한다.
- 위험과 실수가 최소가 되도록 요소를 배치한다.: 가장 많이 쓰는 요소는 가장 접근하기 쉽도록 하고, 위험한 요소는 제거하거나 분리하거나 감싸는 방식으로.
- 위험이나 실수에 관해 경고한다.
- 실패하더라도 안전하게 한다.
- 주의를 요구하는 일에서는 무의식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 원칙 6. 적은 물리적 노력 Low Physical Effort

- : 사용하기 편하고 피로를 줄이도록 디자인한다.
- 균형잡힌 자세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 필요할 때 저절로 작동하도록 한다.
- 반복하는 동작을 최소로 한다.
-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힘을 최소로 한다.

원칙 7. 접근하고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 Size and Space for Approach and Use  
: 사용자의 체구, 자세, 이동성과 무관하게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하도록 크기와 공간을 디자인한다.

- 사용자가 앉아 있든 서 있든 중요한 요소들이 잘 보이게 한다.
- 사용자가 앉아 있든 서 있든 모든 구성 요소에 손이 닿도록 한다.
- 다양한 크기의 손이나 손아귀에 맞춘다.
- 보조 기기나 개인별 보조 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제공한다.

#### 4. WHAT\_돌봄농업의 구성

거리의 철학자 고병권은 “나는 ‘철학’을 묻는 질문을 접할 때마다 그것은 ‘철학한다는 것’에 대한 물음으로 바꾸곤 한다. 내게 철학은 ‘삶의 대상’이라기 보다 ‘행함의 지혜’이고 결국 ‘행함으로 드러나는 지혜’이기 때문이다. 철학은 삶이지만 또한 행함이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 김도현, 2019

돌봄을 무엇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기를 돌보는 것과 노인을 돌보는 것, 마음을 돌보는 것과 발을 돌보는 것, 가정을 돌보는 것과 지역경제를 돌보는 것은 다르겠지요.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에 따라 돌봄의 내용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돌봄농업이고 저것은 돌봄농업이 아니라고 딱 잘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은 돌봄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하고 각 지역과 농장의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을 발굴하고 연결하면서 돌봄농업의 지형을 넓혀가야 하지 않을까요. 차차 관련 지원정책이나 법규를 만들어나갈 때,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농업 실천 농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이해와 합의를 끌어낼 수 있을 겁니다.

유럽과학기술협동조합(COST)에서는 ‘녹색돌봄 Green care’의 개념 모델과 치료 체계에 대한 협동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연 기반의 혜택을 다양한 취약 집단이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녹색돌봄이라고 합니다. 의료부터 재활, 교육, 고용까지 모두 돌봄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돌봄의 방법과 수준에는 차이가 있지만, 특정 집단과 개인에게 ‘의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COST, 2010)

‘녹색 돌봄’에서 돌봄을 의미하는 여러 요소들 | 출처: COST, 2010

돌봄 요소	제공	파트너십
의료	치료, 치료법, 특정 개입	1차 진료기관, 정신 건강 의료진, 사회서비스, 약물과 알코올 치료 단체, 그 외 건강 관련 단체들
사회적 재활	사회적 재활, 공동체 복귀, 사회 기술	약물과 알코올 재활 기구, 보호 감찰부, 범법자 관리부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팀, 난민 기구, 그 외 단체들
교육	대안교육, 특수 시설, 문제 행동 청소년에게 기회 부여	위탁 교육 단체, 학교 및 학습 기술 위원회, 그 외 교육 단체들
고용	취약 계층 지원, 농장 및 토지 관리 기술, 직업 훈련, 보호작업장	성인 학습 및 훈련 단체, 약물과 알코올 재활 기구, 보호 감찰부, 범법자 관리부 및 청소년 범죄 예방 팀, 그 외 보호 고용 제도

돌봄농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의도나 지향 없이 농장에서 사람들과 하는 모든 활동을 돌봄농업이라고 이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돌봄’의 내용과 수준은 넓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만,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는가가 결국 돌봄농업의 정체성이 됩니다. 기존 농촌 체험교육농장이나 원예치료, 직업 재활, 일자리 사업과 비교하고 그 차이를 통해 돌봄농업의 영역을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 가. 농촌 체험 교육 vs. 돌봄농업

농촌 체험 교육 농장에서 기존에 도시민이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던 체험 활동을 노인이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바로 돌봄농업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농민이 농촌에서 농업 자원을 바탕으로 하는 일종의 다기능농업 실천이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농촌 체험 교육이 농업과 농촌의 교육적 가치를 전달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면 돌봄농업은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웃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농민이 농장과 영농 활동을 중심으로 돕는 일입니다.

그리고 농촌 체험 교육은 대부분 일회적이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단절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입니다. 딸기 따기, 고구마 캐기, 떡 메치기, 요리하기 등 대부분 쉽고 흥미로운 수확 활동이 중심이지요. 체험 활동마다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결국 농민은 서비스 제공자가 되고 체험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됩니다. 돌봄농업에서는 농장에서의 활동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농장에 ‘오는 것’만으로도 돌봄이 될 수도 있지요. 농장에서 농사일도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시간조차 돌봄이 될 수 있습니다. 농민과 참여자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이웃이지요. 물론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함께 자연을 돌보는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나. 직업재활 훈련 vs. 돌봄농업

돌봄농업은 직업 교육이나 재활과도 다릅니다. 참여자의 의사와 특성, 그리고 농장의 상황에 따라 고용을 염두에 두고 교육하거나 취업이나 창업을 도울 수 있지만, 개인의 노동 숙련이나 생산성 향상, 취창업 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지는 않습니다. 또 보호작업장이나 일자리 사업과도 다릅니다. 장애인, 노인 등 특정한 집단‘만’ 모여서 일을 하거나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저렴한 노동력을 확보하거나 임금 지원을 받기 위해 돌봄농업을 생각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해서도 안 됩니다. 돌봄농업은 생산주의 농업과 임노동 관계를 뛰어넘어 사회적 연결의 장(場)으로서의 농업, 공통자원으로서의 노동<sup>2)</sup>을 생각합니다. 마을과 농

2) “공통자원commons이란 ‘우리 모두에게 상속’되었거나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집합적인 자원,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소유로 전환될 수 없는 자원을 말한다. 전자의 예로는 공기, 물, 토지, 숲, 바다 등과 같은 자연의 창조물을, 후자의 예로는 언어, 문화, 음악, 예술, 학문, 지식, 인터넷, 공원, 광장, 의료서비스 등과 같은 사회적 창조물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통자원은 해당 공동체 전체의 자원이기엔 구성원 모두에게 ‘상품’이 아닌 ‘선물’로 주어져야 한다. … 노동능력이 공

장이라는 일상의 공간에서 세대나 직업, 개인의 조건이나 능력과 상관없이 다양한 타인을 만나고 함께 어우러지는 ‘사회 통합’을 추구합니다.

---

통자원인 이유는 톰 위커에 따르면 ‘노동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발생부터 사회적이고 협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힐러리 웨인라이트는 ‘인간의 창조성은 개인과 사회 차원이 불가분하게 연결된 독특한 공통자원’이고 그러한 창조성이 개입하는 모든 인간의 실천 역시 공통자원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요컨대 노동능력은 다른 공통자원을 잉태하는 ‘공통자원의 공통자원’, 일종의 메타-공통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김도현, 2019)

## 제4장. 협동조합 행복농장의 돌봄농업 실천

### 1. 협동조합 행복농장 이야기<sup>3)</sup>

#### 가. 2013년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현재의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 센터, 이하 ‘센터’로 표기)에서는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업을 통해 정신장애인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구상하면서 정신장애인들의 공동 농장 모델을 모색하는 중이었다. 충남에 농촌 지역이 많다 보니 정신장애인이 취 업할 수 있는 사업장 자원이 부족했다. 또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직업 재활이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래서 센터에서는 정신장애인에게 직업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완화하고, 충남의 지역 특성에 맞는 직업모형(농촌형 직업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농장 설립을 계획하고 있었다.

2013년 여름 무렵, 센터에서 젊은협업농장을 방문해서 정민철 상임이사에게 자문을 구했다. 센터가 초기에 생각했던 농장 설립·운영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인들의 정기적인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한다. 2)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장 일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5명 정도의 정신장애인을 선발한다. 3) 이들이 농장일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적으로 복귀가 가능해지는 경로를 만든다.

하지만 센터의 직원이나 정신장애인 중 농업을 경험해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농장 구축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래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젊은협업농장에서 농사를 배우고 있던 김수인을 센터의 직원으로 고용하고 농장 구축과 진행을 담당하게 하는 보다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조정하게 되었다.

2014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충남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은 5,029명으로, 전국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95,675명)의 5%였다. 게다가 충남 정신장애인 취업자 수는 229명이었는데 충남 정신장애인 등록 인원의 5%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같은 당시 상황이 행복농장을 만들게 된 배경 중 하나였다. 더욱이 만성정신질환자는 질병 때문에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사회·직업 활동을 하는 데에 기능상 장애가 있고 재발 가능성도 높은 편이었다. 그들은 대인관계의 어려움, 일상생활에서의 기술 부족, 사회적 편견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 때문에 재활과 직업 유지가 힘들었다.

#### 나. 2014년

##### 부추 재배를 시작하다

행복농장은 2014년 초에 홍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서 임대한 홍성군 장곡면 도산리

---

3) 행복농장 실무이사 최정선이 1인칭 시점에서 서술한 행복농장의 운영기록이다.

577-4번지에 있는 200평의 비닐하우스 2동으로 시작했다.

2014년에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해 주는 (자유 과제) 신청 사업에 센터가 '정신 장애인 직업재활훈련'이라는 신청 과제로 선정되어서 부추를 시범적으로 재배했다. 당시 홍성유기농영농조합의 강승식 이사 내외가 부추 생산을 중단하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게 된 때였다. 부추를 납품해야 했던 홍성유기농영농조합 측에서 행복농장이 부추를 재배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행복농장은 지역 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부추 재배를 시작하기로 했다. 강이사 내외가 부추 모종을 무료로 캐서 옮겨 심도록 도와주셨고, 행복농장 가까이에서 자문을 해주던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던 조대성이 밭을 만들어주었다. 부추를 식재할 때는 몇 명의 마을 분과 총출동 한 센터 직원들이 도왔다. 1월의 한겨울 추위에 사흘이나 고생하며 모두 힘을 합해 부추를 심었다. 지금도 행복농장은 지역으로부터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있지만 설립 초기에도 마을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부추를 300g 단위로 포장하여 매달 적게는 6kg에서 많게는 59.4kg까지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납품했다. 중간에 허브(라벤더와 레몬버베나) 재배도 시도했으나 농장 실무자의 경험과 지식 부족으로 허브 재배를 이어가기 어려워지면서 부추 재배에만 주력하게 되었다.

당시 행복농장은 실무자의 농업에 대한 지식 부족, 부추 작물 재배 및 납품의 어려움, 수익성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 농업에서 사계절을 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김수인이 혼자서 재배와 납품까지 감당하는 것은 큰 무리였다.



[그림 4-1]  
부추 다듬는 작업을 하는 김화천씨. 행복농장, 2014년 4월.

## 농장 구축 방향을 조정하다

초기의 여러 어려움은 농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시작되었다. 농장 시설을 정신장애인들에게 맞게 리모델링하고 이들이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고 키우면 판매처 확보는 주변의 도움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농작물을 키운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 놓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한다는 정식적인 조언만으로 이어갈 수도 없었다. 농장 시설을 기반으로 프로그램은 잘 진행되었지만, 시의적절한 종합적 판단을 순간순간 해야 하는 작물 재배는 애초부터 역부족이었다. 시설 투자에 비해 판매액은 터무니없이 낮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센터는, 앞으로는 2~3 명의 비장애인과 함께 일할 정신장애인 2~3명으로 농장을 구축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 개소식과 운영 시작

4월 14일에 유관 기관 및 마을 주민에게 행복농장 사업을 홍보하고, 네트워크 기반을 마련하고자 개소식을 4월에 진행했다. 관공서와 유관 기관 직원 및 마을 주민 등 총 61명이 참석했다.

### [그림 4-1]

행복농장 개소식. 장곡면 도산리 행복농장, 2014년 4월 14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그림 4-2]

행복농장 개소식에서 찍은 단체 사진. 장곡면 도산리 행복농장, 2014년 4월 14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제공.



3월과 4월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남지부를 통하여 정신장애인 1인의 고용을 지원했다. 그러나 주거가 불안정했기 때문에 증상이 재발해서 중단되었다. 주거 문제에 대한 배려와 전문가의 사례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봄가을에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성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지역성 강화 프로그램은 장곡 마을회관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치매 교육, 우울증 예방 등의 ‘정신건강프로그램’과 커플요가, 세라밴드체조 등의 ‘신체건강프로그램’을 다섯 번 진행했다. 총 44명이 참여했다.

가을에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행복농장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봉사단으로 기획했다. 봉사단과 함께 마을 주민과 화합 의장을 마련하기 위한 축하 공연과 체험 행사를 준비했고 총 96명이 참여했다.

당시에는 초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지지 기반을 마련하는 데 더욱 신경을 썼던 것 같다. 지금도 행복농장은 마을 속으로 녹아들고, 또 마을에 도움이 되기 위해 마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농장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센터는 김수인 혼자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교육농연구소 운영 경험이 있는 박형일에게 행복농장 합류를 제안했다. 박형일은 가꿈과 꿈뜰에서 원예교육을 진행해 온 나에게도 참여를 제안했다. 그리하여 나는 2014년

7월부터 행복농장 운영에 함께하게 되었다.

### 여름, 시작과 준비의 시간

2014년 여름에 나는 가끔에서 관리했던 일부 꽃모종들을 여러 날 동안 행복농장 하우스로 나르는 작업을 했다. 한 동에 모종들을 종류별로 분류해서 정리하고 마사토를 한 차 받아서 분갈이를 했다. 처음 행복농장에서 내가 제안 받은 내용은 꽃모종을 키워서 판매하고 정원을 만들고 가꾸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2014년에는 준비하고 회의하는 일로 계속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 가을,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2014년 가을에 처음으로 광역센터에서 준비하고 진행한 ‘자연구시(농촌형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심화과정 프로그램에서, 농장 하우스 앞에 화단을 만들고 꽃모종을 식재 하면서 회원(정신장애인)들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었다. 상반기의 기초과정(2월~6월)과 하반기 심화과정(9월)을 진행 했다. 기초과정은 사회복지시설 라온의집과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각각 12회기와 10회기를 진행했고 총 7명이 수료했다. 심화과정은 사회복지시설 라온의 집과 가온누리·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회원을 대상으로 4박5일간 진행했고 총 15명이 수료했다.

### 사회적 농업의 시작, 행복농장의 성격과 운영 방식을 정리하다

2014년 여름부터 나는 행복농장 업무회의에 참여했다. 행복농장 간판을 갖골목공실에 의뢰도 했고 꽃모종 분갈이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간간이 회의에 참석했던 것 같다. 그 당시 내가 받은 역할은 행복농장 하우스 앞을 화단으로 조성해서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일이었다. 농장 운영 방식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왔었는데, ‘협업’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협업하는 방식으로 가자는 얘기가 오고 갔다.

당시 고문 역할을 해온 정민철 젊은협업농장 상임이사가 행복농장의 독립법인화를 제안했다. 광역센터에서 직영하는 체계의 행복농장을 법인화하는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 독립법인화 준비위원회도 구성하고 회의도 진행되었다.

그때 회의록에는, 행복농장의 성격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다. 1)농장 경영체로 수익이 발생·배분·재투자되는 방식과 2) 공적 성격을 지닌 협업농장이자 사회적 농장으로 농업을 하는 한편 농업 활동을 통해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정리되어있다. 이때부터 행복농장이 사회적 농업의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박형일과 나는 역할을 분담해서 진행하기는 했지만 어수선하고 뭔가 집중이 안 되었던

분위기로 어려웠던 걸로 기억한다. 행복농장에서 허브를 재배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당시 허브 재배에 관심을 두고 시작하려던 이나라와 미국에 살다 1년간 들어와 있던 앤에게 허브 재배를 같이해 보자고 제안했지만, 몇 차례 만나 회의를 하고 진행해 오던 중에 서로 기대치가 맞지 않아 지속하지 못했다.

## 다. 2015년

### 새로운 시작,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다

어찌어찌 2014년이 지나갔다. 그 사이 박형일은 교육농연구소에 집중하기 위해 행복농장 일을 그만두었다. 2015년에는 양홍관과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했던 정인순이 함께 행복농장을 다시 새롭게 시작했고, 현재 위치해 있는 도산2리 586-6번지로 행복농장을 이전했다. 나는 3월 1일부터 행복농장에 정식으로 매일 출근하기 시작했다.

당시의 행복농장 자리에는 협동조합 ‘칭춘’에서 비닐하우스 네 동을 지원받아 지어놓았는데 조직이 해산되면서 젊은협업농장에서 ‘협업2’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있었다. 행복농장이 그 자리로 오는 것이 좋겠다는 정민철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전하게 되었다.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게 된 해가 2015년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 채담이하우스(이사오기 전의 농장)에 있던 행복농장 집기들과 모종들, 그리고 컨테이너 사무실과 창고를 옮기는 작업이 제일 큰 일이었는데, 젊은협업농장과 마을에서 도움을 주었다.

### 여러 가지 시도들

‘협업2’에서 심어놓고 관리하던 상추를 수확하는 일부터 시작했다. 2015년에는 상추와 고추·방울토마토·애호박·허브 (애플민트·바질·루꼴라 등등)를 심고 옥계열매농장에서 남은 멜론 모종을 1번동 첫째 줄에 한 줄 정식했다. 판로는 흥성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바질·애플민트·애호박 정도를 조금씩 납품하기 시작했고 개별 판매도 이어갔다. 꽃모종도 흥동과 장곡 지역에서 지역민 대상으로 조금씩 판매했다. 2015년에는 작물 선정을 하나가는 입장에서 허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는 해였기 때문에 매출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림4-4]

흥동 모종장날에서,  
2017년 4월 28일,  
흥성군 흥동면 애향공  
원,

##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통해 새 식구가 들어오다

2015년도도 마찬가지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자연구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일과정 17명과 기본과정 3차에 39명, 심화과정 4명이 수료했고 심화과정 수료자 중 2명이 2016년에 인턴으로 남았다. 인턴 과정을 거친 두 분이 현재까지 행복농장에 한 분,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에 한 분씩 함께 일하고 있다.

2015년도에 나는 처음으로 아침 일찍 농장에 출근해서 농사일이 반복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인지, 초기에는 코피도 나고 몸이 적응하느라 힘이 들었다. 매일매일 힘든 날이 반복되면서 고되었지만, 농장의 꼴이 갖추어져가는 듯했다.

## 9월 6일, 처음으로 애플민트와 바질을 납품하다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고, 양홍관과 정인순이 함께 날마다 상추 수확 작업을 했다. 고추모종도 사다 심었는데 4월에 하우스 환기를 못해서 다 말라 죽었다. 양홍관이 다시 원주까지 가서 유기고추 모종을 사와서 심었다. 그해 하우스 고추농사는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2015년 9월 6일은 행복농장에서 처음으로 흥성유기농영농조합을 통해 두레생협으로 애플민트와 바질을 납품한 '역사적인 날'이다. 신이 나서 힘든 줄도 모르고 일했다.

## 유기농멜론 농사가 잘되다

청양 쪽에서 옥계열매농장을 시작한 김지현과 김용찬이 유기농멜론을 행복농장보다 규모가 큰 300평 하우스 네 동에 정식했다. 남은 모종을 받아와서 한 동에 한 줄을 심었다. 옥계열매농장은 병해충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줄만 심어서인지, 양홍관이 처음 재배해 보는 작물이라 한 줄 대비 노력을 많이 기울여서인지, 아주 농사가 잘되어서 추석에 판매도 하고 선물로도 보낼 수 있었다. 2015년 초에 채담이하우스에서 현재 위치한 하우스로 이전하고 바로 만든 건 하우스 앞 화단이였다. 마사토를 몇 차 받아서 화단 자리를 만들고 퇴비를 뿌리고 뒤집고... 협업 친구들이 와서 작업을 도와줬다. 나는 너무 신이 나서 정인순과 함께 화단 디자인과 식재를 했던 기억이 난다.

## 라. 2016년

### 하우스가 무너지다

2016년 연초부터 2중 하우스가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겨울엔 상추를 일부 재배하기로 해서 수확을 하던 중이었다. 수막물이 2중 부직포 안으로 들어가 얼어버려서 하우스가 무너졌다.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속상하다. 다른 작물로는 래디시와 아이스플랜트, 식용꽃을 시도해보았다. 방울토마토, 그리고 허브로는 루꼴라와 애플민트, 바질이 있었다. 허브 삼총사는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는 재배작물이다. 2015년도부터 바질을 가공한 바질페스

토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 협동조합 등록과 ‘자연과 정신건강 세미나’ 진행

2016년 2월 29일에 협동조합으로 등록하면서 독립법인 협동조합행복농장이 새롭게 시작되었다. 2016년 3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자연과 정신건강 세미나’를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함께 진행했다. 안 병은 이사장이 번역하고 그물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 『녹색돌봄』을 교재로 진행되었다.

### 치유형 비즈니스모델 시범사업에 선정되다

홍성군농업기술센터의 치유형 비즈니스모델 시범사업에 행복농장이 선정이 되어 다양한 프로그램과 많은 일을 했다. 먼저 ‘자오나학교 월간 농사체험’이 3월부터 10월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총 5회 진행되었다. 자오나학교는 서울에 있는 가톨릭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미혼모와 학교 밖 청소년 기숙형 대안학교 과정이다. 그 친구들과 가벼운 농사 체험과 요리 및 나들이 등을 진행하였다.

### 농촌형 직업재활 프로그램 ‘자연구시’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정신장애인 농촌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자연구시自然求是’가 5월, 6월, 9월에 걸쳐 4박5일 기본과정을 세 차례 진행했다. 8월과 10월에는 1일 자연구시도 진행되었다. 2016년도 자연구시에 참여한 이△△씨는 행복농장에서 심화과정과 인턴과정을 거치고, 오누이친환경마을협동조합에서 현재까지 일하고 있다.

### 일본과 네덜란드의 돌봄농장들을 둘러보다

6월에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치유농업 비즈니스모델 기반구축사업에 선정되어, 치유농업 일본현장조사-의·福·食·農·農·연·連·携 사례를 중심으로-를 다녀왔다. 아이치현과 시즈오카현에 있는 장애인 고용 농장 등을 견학할 수 있었다. 9월에는 안병은 이사장과 안 이사장이 운영하는 행복한우리동네의원 직원들과 함께 네덜란드의 돌봄농장 여덟 곳을 둘러보고 왔다. 일본과 유럽의 돌봄농장과 장애인 고용 현황을 둘러보고 우리와 실정이 많이 다르다고 느꼈다. 행복농장에 맞는 실천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그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

### 요리실습장과 휴게동을 짓다

7월에는 한 달 넘게 오누이센터 쪽(현재 마을부역으로 쓰는 공간)에 요리실습장을 만들고, 행복농장 3번동에 휴게 공간을 지었다. 오누이다목적회관을 설계한 도시문화연구소 정

기황 소장이 운영하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자원봉사자들이 뜨거운 여름내 홍성에서 집짓기 캠프를 열었다. 행복농장 요리실습장과 휴게동 만드는 데 귀한 땀을 흘리고 갔다. 요리실습장은 마을사람들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마을 부엌으로 요긴하게 쓰이고 있고, 농장 하우스 휴게동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다. 더운 여름 땀 흘리신 분들께 늘 감사한 마음이다.

## 2016년의 교훈

2016년은 행복농장에 견학 오는 곳이 많아지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나사렛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 중인 정신보건 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치유농업 스텝양성과정'을 진행하였다. 여성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자, 정신건강학교 가족캠프, 정신과 외래 진료 학생, 탈북청소년, 독거노인, 대안학교 학생들 등 정말 다양했다. 그러나 너무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농사일은 엉망이 되었고 내 몸도 면역력이 바닥을 치면서 병원에 입원까지 했다. 2016년의 교훈은 프로그램을 감당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집중해서 진행하고, 농사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 마. 2017

### 인사 이동(?)과 대표실무자의 어려움

2015년 여름쯤 정인순이 개인 사정으로 6개월 만에 행복농장을 그만두게 되었다. 양홍관도 2017년에는 개인 농사를 짓기 위해 7월부터 독립해서 행복농장에서 나갔다. 하지만 양홍관은 행복농장 법인이사로서 있으면서 지금껏 농장에서 필요로 할 때마다 와서 도와주고 있다. 이전에는 화천언니와 둘이 농장 일을 하다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그물코출판사 식구 장은성과 김수진이 오전 농작업을 도우면서 농사일을 배우는 교육생으로 있었다. 김희수라는 어린 친구도 2017년 4월부터 5월까지 잠시 있다가 서울로 올라갔고, 이은정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일하고 나갔다. 여러 사람들이 행복농장을 스치고 지나간 듯...

이때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다. 농사일도 그렇지만 사람을 두고 일을 진행시키고 역할에 맞게 배치하거나 하는 일들이 능숙하지 못해서, 대표실무자로서의 능력에 한계를 느꼈다. 대표실무자라는 직책은 내가 원하진 않았지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큰 부담이었다.

### 2017년 재배작물과 가공용 바질 납품

2017년 농작물은 애플민트·바질·루꼴라를 계속 재배하고 와일드루꼴라를 일부 시작했다. 상추와 아욱도 한 동에 두 줄씩 재배했다. 2017년은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 가공용 바질을 납품하기 시작한 해이기도 했다. 첫해라 400kg 정도를 납품했지만 해마다 납품 물량이 많아지기를 고대했다. 농사 3년차이지만 갈 길이 멀게만 느껴졌던 해였다.

## 2017년 자연구시 프로그램 2회 진행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하는 2017년 자연구시 (성인만성정신질환자 대상 직업 재활훈련 프로그램)는 1차로 4월에 4박5일 과정과 2차로 5월에 4박5일 과정을 두 차례 진행했다. 2017년 자연구시는 홍성군농업기술센터 지원사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때 참여했던 회원 가운데 △△ 씨가 인턴 4개월 과정까지 하게 되었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안타깝게도 고용으로까지 연결되지는 못했다.



[그림4-5]

자연구시 기본과정 첫  
날, 2017년 5월 22  
일, 홍성군 장곡면 오  
누이친환경마을센터

## 〈한국의 농업현실과 사회적농업〉 연속세미나 진행

홍성군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협동조합 행복농장과 오누이친 환경마을협동조합, 마을학회 일소공도 공동주최로 연속세미나 〈한국의 농업현실과 사회적농업〉을 기획하고 진행했다. 사회적농업의 현재와 다기능 농업, 농업의 치료적 요인, 유럽 사례 등을 다루었는데, 알차고 훌륭한 세미나였다. 이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책자가 2018년 말에 발간되었다.

## 대안학교 학생들이 젊은협업농장을 통해서 농사체험과 실습을 오기 시작

2017년은 유난히 많은 대안학교 학생들이 농사 체험과 실 습을 다녀간 해였다. 동림자유학교, 청계자유학교, 이우학교, 발도르프학교, 용인홍덕고등학교 등의 학생들이 젊은협업농장을 통해서 행복농장으로 농사실습교육을 오기 시작했다.

2017년은 농사일 외에 신경 쓰고 준비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한 해였다. 앞으로 행복농장을 잘 운영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럽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초심을 지키며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 바. 2018~2019

### 와일드 루꼴라와 바질의 병충해

2018년 또한 많은 일과 변화를 겪었다. 여전히 사람손이 부족하여 농작물 재배의 어려움을 겪었고, 매해 여름마다 힘들었지만 유난히 2018년 여름에는 농작물 피해가 심했다. 행복농장뿐 아니라 주변 농장들에 서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들었다. 와일드 루꼴라는 애벌레 피해가 심했다. 특히 바질은 2015년부터 재배해 왔지만, 처음 곰팡이병이 생겨 방제도 소용이 없어서 일찌감치 뽑아버렸다. 곰팡이병 대책을 단단히 마련해야한다. 2017년도부터 홍성유기농영농 조합에 행복농장이 납품한 바질로 건바질과 바질솔트를 가공생산하고 있다. 2018년도 바질 생산 물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더 많이 생산해야 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2019년부터는 행복농장에서 바질페스트를 정식으로 판매할 예정이라 바질 생산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 꽃모종을 많이 만들다

2018년 봄에는 꽃모종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다. 가지고 있던 묵은 씨앗을 빨리 뿌리려다 보니 그리되었다. 4월 모종장에 트럭이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젊은협업농장과 양홍관이 도와주었다. 워낙 많이 파종했기 때문에 장에서 팔고도 일년초들이 많이 남아 풀무학교 전공부와 꿈뜰, 농장 방문객들에게도 나눠주었다.

### 사회적농업을 알리기 위해

2018년에 공주정신건강국제학술문화제에 충남광역정신건강 복지센터와 함께 사회적농업을 알리는 홍보 부스를 이틀 간 운영했다. 홍보용 선물로 바질페스트를 400개나 만들고 ‘꽃처럼 열심’ 꽃상자를 200개 제작했다. 바질페스트와 ‘꽃처럼 열심’ 꽃상자 만들기에 여러 사람이 손을 거들었다. 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들을 모두가 함께해주어서 가능한 일이었다.



[그림4-6] 공주정신건강국제학술문화제에서. 2018년 8월 24일, 공주시 고마나 루예술센터

### ‘꽃처럼 열심’, 그물코와의 협업

‘꽃처럼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그물코와 협업한지 몇 년이 되어간다. 2018년에는 그물코

농장 안에 책방을 만드는 꿈꾸던 장은성 대표와 김수진 편집장과 함께 꽃상자도 만들어 팔고 노지밭에 숙근초와 구근도 심었다. 2019년에는 행복농장에서 판매장 건축을 계획하고 있다. 그물코 출판사의 느티나무헌책방이 있는 지금의 갯골 건물을 비워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특별출자금을 모금하여 책방, 그리고 꽃과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할 건물을 지을 예정이다.

###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다

2018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다. 전국 60곳에서 지원하고 9개소가 선정되어서, 서류 심사와 현장 방문을 거쳐 사업계획 발표까지 세 차례의 심사가 있었다.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데 익숙지가 않고 서툴러서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난다.

### 1차, 2차 ‘자연구시’

2018년도에는 사회적농업 사업으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다. 우선 ‘자연구시’가 있다. 성인만성정신질환자 대상 1차 자연구시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6월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 간 7명의 회원들이 참여했다. 2차 자연구시는 2018년에는 처음으로 서울 한울정신건강복지협의회 산하 세 곳의 공동생활 가정연합 회원 11명과 2박 3일 간(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진행했다.

성인만성정신질환자 대상 1, 2차 자연구시를 진행하면서 농업을 통한 돌봄 가능성과 지속성에 대한 욕구 확인과 확대 가능성을 볼 수 있었다. 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한울정신건강복지협의회 등 전문 복지기관과 연계하면서 ‘사회적농업’의 성과를 일정하게 냈다고 생각한다.

### ‘돌보는 농부학교’

두 번째로는 금마중학교 돌봄반 학생들 4명과 1년 과정으로 13회간 ‘돌보는 농부학교’라는 이름으로 농업 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학교 담당 선생님의 높은 관심과 도움으로 1년간 무사히 진행되었고 아이들도 즐겁게 참여했다. 올해까지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담당 선생님의 전근으로 안타깝게도 작년 한해로 마무리되었다.

### 장곡 마을학교의 ‘꼬마 정원사’

사회적농업 사업과는 별개로, 장곡초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장곡 마을학교의 여섯 가지 정규 수업 중 행복농장에서는 ‘꼬마 정원사’라는 이름으로 1년 간 19회 동안 진행했다. 7명의 아이들과 꽃을 키우고 심고 가꾸고 자연물을 이용해 꽃누르미 양초와 크리스마스

리스를 만들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그림 4-7] 장곡초등학교 꼬마정원사 꽃누르미 수업. 2018년 7월 12일



### ‘돌봄농업 연속세미나’ 진행

2017년도에는 ‘한국의 농업현실과 사회적농업 세미나’를 진행했고, 2018년에는 충남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공동주관으로 ‘돌봄농업 연속세미나’를 진행했다.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내용으로 기획했다. 총 4회 동안 많은 분이 관심을 보이고 참여해주셨다.

### 마을학회 일소공도 대회 ‘사회를 돌보는 농업’ 심포지엄 진행

그리고 2018년 12월 13일에는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주관하는 3일 연속 대회의 한 부분인 ‘사회를 돌보는 농업’을 주제로 제2세션에 공동 주관으로 참여해서 전국 6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많은 분의 관심이 사회적농업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됐을 것이다.

### 3권의 자료집 발간

이렇게 다양한 사회적농업 관련 세미나 등을 진행한 과정을 정리해서, <한국의 농업현실과 사회적농업> 책자와 2018 돌봄농업 연속세미나 <어떻게 만날 것인가>, <사회를 돌보는 농업> 등 총 3권의 책자와 자료집을 2019년 초에 발간했다. 이 발간물들은 사회적농업에 대한 이해와 인식 확산, 그리고 사회적농업 실천을 위한 농민 교육 자료로 쓰일 것이다.

## 사회적농업 인큐베이팅 사업

2018도에 특이할 만한 사업 중 하나는 ‘사회적농업 인큐베이팅사업’이다. 이 사업은 농업을 통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농촌 지역 정착을 위한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한다.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진행했다. 행복농장 육묘장 한켠에 적소렐 재배장을 만들고, 교육용 재료를 제공하고 판로 개척과 전반적인 재배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이나래 씨는 2019년에도 이어서 행복농장 일부를 임대하여 창업을 목표로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다.

## 바질페스토 가공허가를 받다

행복농장에서 2015년부터 재배한 바질을 수확하여 만들던 바질페스토에 대한 가공허가를 받는 과정을 진행했다. 알음알음 판매해온 바질페스토가 나름 인기가 있어서 제대로 가공허가를 받고 본격적으로 판매해볼 생각으로 2018년에 추진했는데, 바질이 많이 나오는 2019년 6월부터 페스토를 만들었다. 홍성유기농영농조합에서 행복농장 바질로 가공 생산하는 건바질과 바질솔트에 바질페스토까지 세트로 포장해서 판매할 계획도 있다.

## 사회적농업의 확산을 위한 홍보 행사에 참여

마지막으로 사회적농업의 확산 및 홍보를 위해 2018, 2019년도 이어서 사회적경제 박람회와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했다. 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공주정신건강국제학술 문화제에 사회적농업 부스를 공동운영했다.

## 사. ○○언니

### 행복농장의 산증인 ○○언니를 자연구시 프로그램에서 만나다

○○○씨는 나보다 한 살 많다. 2014년과 2015년 ‘자연구시’ 프로그램에서 만날 때는 ‘○○○님’이라고 불렀는데 행복농장에 스태프로 출근하면서부터는 ‘언니’라고 부르고 있다. 2014년에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행복농장을 만들었고, 농장에서는 홍성군에 있는 시설의 정신장애인들과 상반기 5개월간 자연구시 기본 과정을 진행했다. 그 기초 과정에서 ○○언니를 처음 만났다.

2014년에 ○○언니의 출석률은 안 좋았지만, 2015년에는 4박 5일 자연구시 기본 과정부터 2주간의 심화 과정까지 함께했다. 그리고 6개월 인턴 과정까지 차근차근 거쳐 고용이라는 단계까지 올라갔다. 그 뒤로 같은 단계를 거친 △△ 언니도 있지만, ○○언니는 행복농장의 산증인이자 최초의 성공 사례의 장본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올해로 5년 동안 늘 행복농장과 함께하고 있다.

### ○○언니의 주거 독립이 어려웠던 이유

○○언니는 20대에 결혼한 후 조현병을 앓게 되면서부터 삶이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이혼을 당하고 자식들과도 헤어지고 순천에 사는 어머니와 가족과도 헤어져서, 어찌어찌 충남 홍성군 시설에서 15년을 살았다. 개인사를 보면 참 딱하고 안쓰러운 언니다. 행복농장과 나와 어떻게 인연이 되어 지금까지 함께하는 게 고맙기도 하고 이제는 의지도 된다.

○○언니가 행복농장과 인연을 맺은 후에는 시설에서 농장 까지 버스로 출퇴근했다. 그런데 2017년 3월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다.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이 참에 주거 독립을 시켜드리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른 거처를 마련하기 전에 당시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던 이은정이 살고 있던 마을 집에서 두 달 동안 지내기로 했다. 하지만 자꾸 여건이 맞지 않아 6개월 정도 더 살았다.

처음에 ○○언니는 갑자기 바뀐 생활환경에 기뻐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했다. 문제는 시설에서 지낼 때는 관리 받으며 아침저녁으로 약을 먹었는데, 주거 독립을 하면서부터 약을 안 먹어 환청이 더 심해졌다. 여름 무렵에는 농장에 출근을 안해서 집에 찾아가보면 ‘나가기 싫다’, ‘엄마 집으로 가고 싶다’는 얘기까지 했다. 그때 ○○언니 집에 찾아가다가 혼자 농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젊은협업농장에서 일하는 정영환을 만났는데 너무 속상해서 그 앞에서 울어 버렸다.

그 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순천 부모님 집에 다녀온 후 증세가 더 악화되는 것 같아 광역센터 선생님과 상의해서 보름간 입원했다. 퇴원 후에는 바로 농장에 출근하라고 얘기하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 꾸준히 약을 복용한다면 다시 농장에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일주일간 시간을 드렸고, 그 후 다시 농장에 출근했다.

주거 독립 후 생긴 문제는, 오랫동안 시설에서 규칙적으로 관리 받는 삶을 산 언니가 하루 아침에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당연히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한다.

### ○○언니와 함께 마을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

가족들이 돌보지 못해서 시설이나 병원에 오래도록 살고 있는 정신장애인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신장애인이 시설을 나와 독립적인 삶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언니의 경우는 갑작스런 주거 독립으로 인한 부적응 문제라고 생각한다. 주거 독립은 1~2년 또는 3~4년간 공동생활가정에서 전문사회복지사의 돌봄을 받으며 사회복귀훈련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게 좋다. 하지만 ○○언니는 단계적인 독립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물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지만 처음 독립 생활을 했을 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졌다고 생각한다.

○○언니와 관련해서 내 역할은 부담스러울 만큼 많았다. 정신건강 전문사회복지사가 집중해서 돌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에 더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처럼 정신장애인의 돌봄은 농장만 책임지거나, 전문사회복지사만 책임지면 안된다. 유럽처럼 농장과 전문사회복

지사가 역할을 나누는 방식으로 돌봄농장을 만들어가면 좋겠다.

○○언니는 요즘도 가끔 결근한다. 하지만 내가 ‘언니 없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면, ○○언니도 ‘혼자서 힘들었겠다’고 미안해한다. 이제는 서로 이해하는 동료가 되었다. ○○언니가 언젠가는 행복농장이 있는 장곡면 도산2리 마을 주민으로 사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한다.

## 2. 협동조합 행복농장 2019년 돌봄활동 기록4)

### 가. 자연구시

#### 1) 배경 (2016,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업은 필수적인 성인의 활동이다. 개인이 선택한 직업이 자신의 관심, 기술, 재능을 반영한다면 그것은 정말 행운일 것이다. 일하는 것, 특히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은 자기신뢰, 자아존중감, 지역사회 내 지위, 경제적 안녕을 촉진시킨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우리사회는 노동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한다. 급여를 받는 역할은 친구, 배우자, 부모, 주택소유자, 집주인, 이웃, 고객, 납세자를 포함하는 다른 가치 있는 사회적 역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직업재활은 정신장애인에게 보다 체계적인 훈련과 지지적인 환경을 제공하여 직업을 갖도록 돕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를 통해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보다 가치 있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재활과 회복의 방법이다. 그러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직업 교육 및 훈련의 부재는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큰 장벽이자 장애물이다. 물론 정신질환 그 자체도 고용의 장애물이다.

국내 중증 정신질환자는 약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28만 명이 정신 의료기관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증 정신질환자 중 최대 9.6만 명만이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4%로 전체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39%)의 절반 이하이며, 정신장애인 중 약 54.5%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일 만큼 경제적 활동 수준이 낮다.

유럽에서는 치유농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와 재활, 회복은 물론 고용까지 추구하고 있다. 물론 정신장애인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일반 대상에서부터 도움이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 알코올 중독자, 실업자 등 대상 군이 다양하다. 치유농업의 구성 요소인 일과 집중, 구조화된 생활, 자연환경, 공동체, 소규모 집단, 농부 및 지원인력의 태도 등은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정신보건법이 제정되고 1997년 동법이 시행되면서 수용위주의 정신보건정책에서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중심체제로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와 직업재활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정신보건법이 시행 된지 20여 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낮은 고용률과 높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직업재활 프

---

4) 본 보고서의 모든 사진은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 배포할 수 없습니다. 사진 활용에 대한 문의는 협동조합 행복농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창작자의 허가 없이 사진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2차 제작물을 만들 경우 저작권 등 지적 소유권 침해, 초상권 침해로 간주하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음을 알립니다.

로그그램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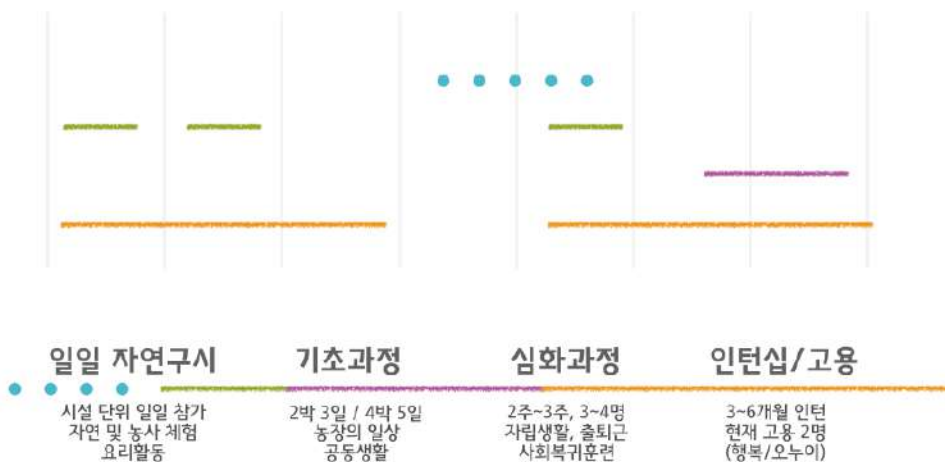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의 형태는 보호작업장(sheltered workshop), 임시취업 (transitional employment, TE), 지원고용(supported employment, SE) 등이 있으며 최근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으로 고용형태가 확대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 도시 중심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충청남도는 농어산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1차 산업의 비중이 크고 상대적으로 2차 산업의 비중이 작아 정신장애인들은 직업재활의 기회마저 주어지지 않고 있다.

충남지역의 농가 규모는 30만 8천명(12.0%)으로 전국 4순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농가의 인구 감소율이나 고령인구 비율은 21.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따라서 고령 인구의 농지 경작으로 지역에서는 일손 부족과 휴경지발생 빈도도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국내외적인 상황 속에서 충청남도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농촌형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및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으며, 2014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3년 지원사업으로(총액 5,000만원) '자연구시(自然求是)'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정신장애인을 위한 농촌형 직업재활 프로그램인 '자연구시'는 조선 실학사상의 '실사구시(實事求是)'에서 차용한 개념으로 '자연에서 옳음을 구한다'는 뜻으로 자연 속에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되찾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자연구시는 정신장애인이 농촌 마을의 농장에서 일일과정, 기초과정, 심화과정, 인턴과정, 단기고용의 단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회복되고 고용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 2) 단계



일일과정은 충청남도 15개 시·군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정신장애인 사회 복귀시설의 각

기관별로 다수가 참여하는 일일 농작업 체험과정이며, 기본과정은 2박 3일에서 4박 5일로 진행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으로 참여자와 진행자가 함께 숙식하며 농작업 이외에도 정신건강 집단 프로그램, 마음나누기, 호흡·이완 프로그램, 원예 프로그램, 야외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심화과정은 총 3주간 진행되는 지역농장과 연계한 심화 실습 과정이며 심화과정 이후 상호간 협의를 통해 인턴 및 정규채용을 목표로 하게 된다.

### 3) 진행경과

시기	내용
2013년	충남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 농촌형 직업재활 모형 개발사업 기획 정신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 협약
2014년	행복농장 개소 - 기본과정: 사회복지시설 라온의집(12회기) 홍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10회기) 진행 - 심화과정: 라온의집, 가온누리, 홍성군정신건강증진센터 회원 15명, 4박 5일 수료
2015년	- 일일과정: 1차 진행, 17명 참여 - 기본과정: 4박 5일, 3차, 총 31명 수료 - 심화과정: 14박 15일, 4명 수료 > 인턴 2명 채용
2016년	- 일일과정: 3차 진행, 39명 참여 - 기본과정: 4박 5일, 3차, 총 30명 수료 - 심화과정: 14박 15일, 4명 수료 > 인턴 1명, 정규 1명 채용
2017년	- 기본과정: 4박 5일, 2차 총 28명 참여
2018년	- 기본과정: 2차 진행, 총 18명 수료

### 4) 2019년 1차 자연구시 개요

#### 가) 개요

- 일시: 2019년 4월 1일(월)~5일(금), 4박 5일
- 장소: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곡면 도산2구 오누이센터 인근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협동조합 행복농장,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5) 참여자

- 참가자(12명)
  - 모집: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관. 도내 지역사회 정신보건 관련 유관기관(기초 시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원, 정신병원 등)에 공문을 배포, 참

여자 모집 후 사전 인터뷰와 준비도를 평가하여 최종 참여자 확정

- 참여: 충남도내 정신장애인 12명 (남 10명, 여 2명 / 국립공주병원 7명, 내마음카페 1명, 논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2명, 보령시정신건강복지센터 2명)

· 진행인력 및 역할(11명)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4명):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선발, 픽업, 집단상담 및 호흡이완 프로그램 진행, 참가자 개별 상담
- 협동조합 행복농장(4명):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농작업 교육, 나들이 교통 지원, 야간 숙소 안전 지원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2명): 농작업 안내, 아침 체조
- 기타(1명): 사진 기록, 보고서 작성 기록

6)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4/1일 (월)	11:00 ~ 11:30	픽업 및 이동	
	11:30 ~ 12:30	오리엔테이션: 회원소개 및 자연구시 소개	오누이 강당
	12:30 ~ 13:30	점심식사	행복부엌
	13:30 ~ 15:00	마을산책, 농장과 농작업 소개	행복/협업농장
	15:00 ~ 16:00	숙소이동 및 휴식	한옥집
	16:00 ~ 16:30	집단프로그램: 마음챙김요가1	강당
	16:30 ~ 18:00	집단 상담	오누이강당
	18:00 ~ 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 ~ 21:00	휴식 및 자유시간(영화관람)	한옥집/강당
	21:00 ~	휴식 및 취침	한옥집
4/2일 (화)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한옥집
	08:00 ~ 09:00	아침식사, 집단프로그램: 체조	행복부엌,마당
	09:00 ~ 12:00	농작업1. 발정리, 수확	젊은협업농장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행복부엌,한옥집
	13:00 ~ 14:00	마음 챙김 요가 2	오누이 강당
	14:00 ~ 16:30	농작업2. 옮겨심기, 수확	행복농장
	16:30 ~ 17:00	숙소 이동 및 휴식	한옥집
	17:00 ~ 18:00	호흡이완프로그램	한옥집

	18:00 ~ 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 ~ 20:00	집단상담 프로그램	한옥집
	20:00 ~	휴식 및 취침	한옥집
4/3일 (수)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한옥집
	08:00 ~ 09:00	아침식사 및 체조	행복부엌,마당
	09:00 ~ 12:00	농작업3. 삽목 및 정식	행복농장
	12:00 ~ 13:00	점심식사 및 휴식	행복부엌,한옥집
	13:00 ~ 14:00	마음 챙김 요가 3	오누이 강당
	14:00 ~ 16:30	농작업4. 화단, 산양돌보기	마을
	16:30 ~ 17:00	숙소이동 및 휴식	한옥집
	17:00 ~ 18:00	집단상담 프로그램	오누이강당
	18:00 ~ 19:00	저녁식사	행복부엌
	19:00 ~	휴식 및 취침	한옥집
	4/4일 (목)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아침식사 및 체조	한옥집,마당
09:00 ~ 10:30		제조작업	행복농장
10:30 ~ 11:00		숙소이동 및 환복	한옥집
11:00 ~ 12:00		이동	보령
12:00 ~ 13:00		점심식사 후 이동	식당
13:30 ~ 15:30		나들이	태안
15:30 ~ 16:30		숙소로 이동 및 휴식	한옥집
16:30 ~ 18:00		음악회	오누이강당
18:00 ~ 19:00		저녁식사(삼겹살파티)	행복부엌
19:00 ~21:00		집단프로그램: 노래자랑	마을회관
19:00 ~	휴식 및 취침	한옥집	
4/5일 (금)	07:00 ~ 08:00	기상 및 세면	
	08:00 ~ 09:00	아침식사 및 짐정리	한옥집
	09:00 ~ 09:30	저수지 산책	
	09:30 ~ 10:00	마음 챙김 요가 5	오누이강당
	10:00 ~ 11:00	원예활동(잔디인형 만들기)	오누이강당
	11:00 ~ 12:00	평가회(참여자)	오누이 강당
	12:00 ~ 13:00	점심식사	행복부엌
	13:00 ~ 14:00	평가회(STAFF)	오누이세미나실

## 7) 세부 내용

### 가) 오리엔테이션 \_4/1\_1일차

#### (1) 환영하기

관계형성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첫 날은 참여자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나와 참여자를 맞이하고 환영하는 과정을 통해 낯선 환경에서 느껴질 수 있는 긴장을 완화한다. 참여자가 이전에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다시 소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별한 활동 없이, 그저 앉아서 담소를 나누거나, 차를 마시거나, 다과를 즐기면서 편안하게 시작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참여자들이 편안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인사말 및 기관 소개

프로그램을 제공(주관)하는 기관의 보직자가 간단한 인사말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다. 자연구시의 참여자들에게 본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을 소개함으로써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프로그램에 제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집중력을 높인다.

#### (3) 진행자 및 참여자 소개

프로그램의 모든 진행자들이 직접 본인을 소개하며 참여자들에게 인사말을 건넨다. 진행자에 대한 소개가 끝나면 참여자들이 직접 본인을 소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참여자의 기능에 따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에 참여자가 자신의 최소한의 정보(이름, 지역, 나이, 참여 동기 등)에 대하여 소개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줌으로써 표현을 격려한다.

#### (4) 프로그램 세부 일정 및 생활수칙 안내

프로그램 세부 일정 및 생활수칙을 안내함으로써 미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을 줄이고, 하루의 구조화된 일과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일정표 및 생활수칙을 숙소에 부착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이에 익숙해지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장에서의 행동규칙, 활동절차 및 방법과 관련된 사항의 설명은 명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휴식시간의 운영, 흡연 가능한 장소 등이 해당한다.

---

### **생활수칙**

자연구시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기상, 취침, 프로그램, 휴식 시간 등 프로그램 시간을 준수한다.
  2. 시작 전에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흡연, 화장실 등)
  3.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울 경우 진행자와 다른 구성원들에게 양해를 구한다.
-

- 
4. 다른 구성원들에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갖는다.
  5. 개인별 상황에 따라 약을 복용한다.
  6. 흡연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구역에서 행한다.
  7. 폭언 및 폭력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며, 음주를 하지 않는다.
  8. 위의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았을 시 주관기관의 조치에 따른다.
- 



## 나) 마을산책, 농장과 농작업 소개 \_4/1\_1일차

### (1) 마을산책

자연은 그 자체만으로 치유를 제공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으로 마음의 안정과 심신의 피로를 덜 수 있다. 산책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마음의 무거운 짐을 털어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하나의 농장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닌 마을(지역 사회)의 전반에 걸쳐 있는 자연을 이용한다. 이에 참여자들과 함께 마을을 산책하는 시간을 갖고 자연 그 자체를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친숙함을 유발시키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소개한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에 비추어 생각해 보건데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 및 재활도 이와 같다.

### (2) 농장 및 농작업 소개

전문 농업인이 직접 참여자들에게 농장 및 농작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호기심을 자극한다.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간단명료하고 친숙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다) 농작업\_ 4/2-3\_4차

농촌은 그 자체로도 거대한 사회공동체의 하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

회적 관계는 인간 생활의 필수 요소이다. 참여자는 사회공동체인 농촌에서 농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진행자와 다른 참여자 등과 자신 이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임을 확인할 수 있다.

농작업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사전 안전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간단한 체조로 몸과 마음(정신)의 긴장을 완화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어떤 활동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참여자의 안전이며, 활동이나 계절, 주변 환경에 따라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있다. 장비의 활용이나,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안전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농장의 규모와 농작업의 성격 등에 따라 참여자의 숫자를 조절하며, 참여자가 다수일 시에는 필요에 따라 그룹으로 분리하여 각각 다른 장소(농장) 에서 농작업을 진행한다. 농장 또는 농작업을 참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의 개별적 기능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문 농업인이 직접 농작업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기능이 부족한 참여자 에게는 집중·밀착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지원한다.

(1) 농작업1\_4/2\_오전\_상추수확 @젊은협업농장



(2) 농작업2\_4/2\_오후\_허브 옮겨심기, 상추, 루꼴라 수확 @행복농장





(3) 농작업3\_4/3\_오전\_정식 @행복농장



(4) 농작업4\_4/3\_오후\_풀베기, 산양돌보기, 화단 정리 @오누이마을



#### 라) 집단상담\_소통 프로그램\_ 4/1-5\_매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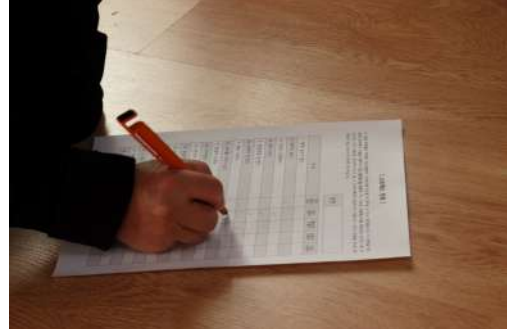
자연구시 프로그램은 자연과 인간, 지역사회 공동체, 사람과 사람이 함께 소통하는 경험 안에서 참여자들의 성장과 회복을 추구한다. 이에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긍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함과 동시에 감성 공동체(Empatic Community)로써의 공감체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

정신장애인은 감정표현이 제한적이고, 자신감 결여, 사회기능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러한 자기표현 및 의사소통 기능의 회복을 촉진시키고, 정서적 환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모든 참여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요하거나 독촉해서는 안 된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익일 활동에 대한 이해를 제공하며, 참여자들의 요구 사항 및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함께 공유한다.



#### 마) 호흡·이완 프로그램\_4/2, 4/4\_2회

깊고 느리게 호흡하는 것, 이완된 자신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 일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몸과 마음(정신)의 이완을 통해 하루의 분주함 속에서 숨 돌릴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한다. 호흡에 의식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중요하다. 어쩌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호흡을 변화시킬 수는 있다.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단 몇 번의 깊은 호흡만으로도 편안함을 가져올 수 있다. 호흡을 통해 편안함을 느낄 때 마음(정신)도 편안해지며 자신만의 리듬 안에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깊게 그리고 낮설지 않게 호흡하는 것이 호흡·이완의 목적이다.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참여자들이 편안하게 숙면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바) 집단프로그램

집단은 서로가 동일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의식이 있고 공통의 목적이 있으며, 목적 성취에 있어 상호의존적이고 합의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집단은 정서적 부적응이나 심리사회적 기능을 개선시키고 다양한 관계와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해준다. 정신건강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는 첫째,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를 확립하거나 또는 재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존감을 발전시키고 향상시키는 것이며, 셋째, 참여자의 내적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키고 부주의, 불안, 긴장, 병적 감정상태를 전환시켜 환각, 망상, 강박적 사고와 행위를 예방하는 것이다. 넷째, 주의집중이나 주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것이며, 다섯째, 감정의 정화로써 정서를 개방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집단 치료 과정에서 필수적이며 대인관계 과정의 부분이기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 활동을 통해 궁극적으로 인격적 통합을 도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레크리에이션, 운동요법, 음악(노래방) 등의 적극적인 활동은 숙박을 함께하는 참여자들 간의 친밀감을 도모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다.

#### (1) 마음 챙김 요가\_4/1-5\_매일



#### (2) 아침체조\_4/2-5\_매일



(3) 노래자랑\_4/4



사) 나들이\_두부체험-바닷가\_4/4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이로 인한 스트레스와 긴장은 당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익숙하지 않은 지속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다. 이에 신체적/정신적 소진 예방을 위하여 농장과 지역사회를 벗어나 야외 (Outing)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자연구시에서는 가까운 태안군 놀샘터 농장에서 두부만들기, 허브족욕 체험을 하고

바닷가 나들이를 했다.



아) 작은 음악회\_ 4/4

지역에 사는 음악가가 자연구시 프로그램의 취지를 듣고 기꺼이 재능기부를 결심해서 자연구시 참가자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자) 원예활동\_잔디인형 만들기\_ 4/5

원예는 인기가 있고, 프로그램에 자주 사용되는 소재이다. 원예 프로그램은 토양 준비에서부터 식재, 솟아내기, 모종이식, 제초, 물주기 및 수확 등을 통한 식물의 모든 생장

단계에서 활용 가능하다. 농장에서 채집이 가능 한 농작물을 이용하여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 후 직접 본인이 만든 결과물 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 종료 후에도 자연연구시 프로그램의 간접적인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한다.



#### 차) 수료식

지난 4박 5일 간 소감과 감사의 마음을 나누고, 참가자 프로그램 평가를 진행했다. 별다른 사고와 갈등 없이 모두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4박 5일 일정을 소화한 것을 축하하며 수료증을 수여했다.



#### 8) 참가자 소감

- 참가자1. 김○○: 단체 생활을 안하다가 규율에 얽매여서 생활하는 게 저에게는 굉장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안면도 여행 갔을 때는 담배 피우는 분하고 같이 차에 배석이 되다보니 멀미도 심하게 했고요. 다음 회차에 우리 자연연구시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식성, 기호를 맞춰서 그렇게 배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좋았던 점은 식당 누님이 음식 숨씨 갑니다. 같이 생활하신 그곳에 계신 어머니, 제 부모님 같습니다. 너무 좋았고요. 회원들, 같은 병을 앓고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하고 좋았습니다.
- 참가자2. 김○○: 다른 건 안 힘들었는데 제초 제거할 때 뿌리 깊어서 그것 때문에 좀

- 힘들었어서 목이랑 어깨 아픈 거 빼고 나머지는 좋았어요. 어제 기타 연주도 되게 좋았어요.
- 참가자3. 정○○: 저는 여기 와서 이렇게 환우 분들과 생활하고 한 게 기억에 남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활동한 게 좋았어요. 안면도 가서 두부 만들었을 때 우리 조가 제일 맛있다는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았어요.
  - 참가자4. 주○○: 특별히 자연구시를 하고 싶다가 보다는 꽃이 많은데 오고 싶다는 생각으로 왔어요. 처음에는 오겠다는 마음 자체가 힘들었는데 와보니까 좋았고요. 쌈채소 수확하고, 상토도 하고, 여러 가지 생명에 대해서 배운 것 같고. 바다 보니까 너무 좋았고 인상 깊었어요.
  - 참가자5. 김○○: 병원에서 생활한지 좀 오래됐어요. 옛날엔 참가자를 많이 모집 안했더라고요. 이번에는 참여자 모집을 많이 해서 혹시나 저 같은 사람도 체험할 수 있나 신청했거든요. 그런데 우연찮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기대감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어색하고 조금 거부감이 많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생활을 오래 하다가 물론, 병원에서 간혀 있는 것 보다 좋은 점도 이 있어요. 해방감. 나와서 생활하니까 해방감도 있고 자유로운 점이 좋은 점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엔 제일 좋았던 것 같았어요. 바닷가 체험, 두부 만드는 것도 체험했고, 족욕도 했잖아요. 그런 경험을 해서 가장 좋았고요. 직접 우리가 만든 고기, 상추쌈 있잖아요. 직접 키워서 수확해서 먹으니까 좋았어요.
  - 참가자6. 유○○: 저도 똑같은 생각이예요. 불편한 거는 샤워장이 좀 불편하고 옷걸이를 바깥으로 해놨으면 좋겠고. 입구에다 뭐 하나 설치해놨으면 좋겠고. 거기에 방마다 시계가 있었으면 좋겠고. 숙소는 꺾어보니까 고칠 점이 많더라고요. 티비도 없고. 그리고 이제 끝나니까 아쉽긴 하네요.
  - 참가자7. 송○○: 저는 와서 재밌었고요. 그냥 좋았어요. 삼겹살 먹고.
  - 참가자8. 최○○: 저는 사소한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 작은 것들이 고맙고 감사해요. 직접 체험해보고 다 해보니까 고맙단 생각이 들어요. 기타리스트가 기○○게 남아요. 제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긴장하고 집중해서 들은 적은 처음이에요. 대중 음악은 그냥 슬프고 즐겁고 그런데 기타 코드들이 열정적이다가 평화롭고, 슬프다가 웃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좋았어요.
  - 참가자9. 최○○: 저는 하우스에서 상추 수확하는 거 좋았고요. 어제 나가서 먹은 점심 갈비탕도 좋았고. 수육 먹은 것도 생각나고. 더 있고 싶어요. 식당도 좋고. 좀 아쉬워요. 우리 선생님들도 애쓰셨어요. 또 공주 병원까지 실어다 주셔야 하니까 애쓰셨어요.
  - 참가자10. 주○○: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생각이 나는 게 없어요.
  - 참가자11. 서○○: 저는 농촌체험기술도 많이 배우고 참 재밌었습니다. 바다 구경도 하고 재밌었고 일주일이 퍼뜩 지나갔습니다. 모든 게 재밌었습니다.

- 참가자12. ○○: 선생님도 좋았고요, 단체 생활 하면서 통제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약간 자유로워서 좋았던 것 같아요. 바다 봐서 마음이 트이고 좋았어요.
- 스태프1. : 부족한 점도 있었는데 내년엔 자연구시 할 때는 더 의미 있는 시간 가지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스태프2. : 저도 두 번째 참여인데 할 때마다 오시는 동료들과 호흡이나 궁합이 다르신 것 같아요. 이번 멤버는 출발 드림팀. 서로 성향에 대해서 잘 존중해주시면서 잘 챙겨주시고 당겨 주시고 그런 것들 보시면서 저도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본인 컨디션에 따라서 이번엔 쉬겠다, 다음 번에도 열심히 하시고 집중하시고 본인 상태를 얘기해주시고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상황이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힘들잖아요. 다음번엔 영향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시니까 좋더라고요. 앞으로도 더 본인들이 더 잘 선택하시고, 집중할 때 집중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 스태프3. : 5일 중에서 수요일 하루만 있었지만, 저도 느꼈던 건 회원 분들이 자기 상태나 상황이 다른데 잘 하시는 분들이 도와줘야 할 분들을 챙겨서 도와주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고, 처음일 텐데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감 가지기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로써도 뿌듯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 스태프4. : 쉬는 시간 많아져서 기분 좋으셨던 것 같아요. 좋은 추억들 가지고 가시는 것 같아서 뿌듯하고 좋습니다.
- 스태프5. : 이번에 같이 하는 시간이 적었지만, 중간 중간 뵈 때마다 다른 매력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여하신 것 같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나 불편한 것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셔서 좋았습니다. 서로 맞춰가야 할 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일 경험 많으셔서 체험보다는 일을 하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불편하셨을 수도 있어요. 일하고 쉬고 싶고 자율적인 구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이 프로그램 기대도 많이 하고 신청 많이 하셨다고 해서 반가웠어요. 내년에도 뵈 수 있으면 좋겠고, 4박 5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 스태프6. : 오랫동안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것이 개개인의 삶에 유익한가라는 의문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기회를 얻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미에서 디딤돌 같은 자연구시라고 생각해요. 조금 더 완성형은 우리가 살 수 있는 집이 지역사회에 있고, 활동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장소가 마을에 있고,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금방 당장에 실현되진 않지만, 올해는 우리가 이 지역에 살 집도 마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일단은 자연이 주는 땀 흘리는 노동이 주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단지 병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회가 제한이 되고 환자로만 살아야하는 게 아니라 병은 아주 일부고 자연인으로써 편안하게 마을에 살아가시는 분이 많아지길 원하는 마음입니다. 행복농장 두 분이 어쨌든 마을에서 같이 살아가시

는 것이 우리에게 참 기쁜 일이에요. 도산리에 있는 행복농장 뿐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농장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런 의도였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의 좋은 점은 굉장히 배려심이 많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 맞춰주시려는 점이 오히려 병이 없는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 아닌가. 올 한해 사시는 동안 4박 5일 자연구시가 좋은 추억, 힘이 됐으면 좋겠고, 욕심 같으면 이런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셔서셔도 좋은 추억 가지고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 9) 종합 평가

### 가) 행복농장 역량 성장 지역사회 협력 확대

- 협동조합 행복농장 기획·주관으로 진행 > 점차 안정화됨
- 행복농장과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분담도 적절
- 지역사회 내 협력관계 확대: 행복농장 외 보조진행자, 야간 숙소 지원, 나들이 교통 지원, 체조 및 공동체 활동, 음악회 등 지역사회 다양한 인적 자원이 결합하여 진행
- 태안군 돌담샘 농장 프로그램 연계, 지속적 협력 약속

### 나) 참가자의 다양한 특성 반영

- 자연구시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기대 확인: 체험, 교류, 취업 등
- 참가자 농작업 기능 차이: 적절한 작업 배치와 시간, 강도 안배 필요
- 심화과정 연계 대상자는 없음 (희망자가 있었으나 논의후 보류)
- 주도적인 공동체 생활 경험 > 양보, 배려, 협동, 합의 등의 과정이 유의미
- > 참가자 당사자 중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이후 프로그램 협력 시도

### 다) 개선방안

- 숙소 불편사항: 외부 화장실 및 샤워실 편의시설 필요, 단체 숙박 구조 불편
- 저녁 시간 참여자간 교류/프로그램 원하는 그룹과 개별 휴식 원하는 그룹의 요구 배려한 프로그램 보완

### 라) 향후 과제

- 개인 운영 사회복지시설, 재활 시설의 유료 프로그램화 고민
- 장기적으로 타지역 사회적농업 농장 인큐베이팅, 컨설팅 역할 필요
- 자연구시 심화과정 연계, 동료지원활동가 양성 체계

## 나. 돌보는 농부학교

### 1) 개요

- 일시: 2019년 3월 13일 ~ 11월 27일, 총 14회
- 장소: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곡면 도산2구 오누이센터 인근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협동조합 행복농장,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 목적: 농업활동을 통해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동기 부여를 돕는다.  
단체 활동으로 대인관계 능력과 일상생활기능 향상을 도모한다.

### 2) 참여자

- 참가자(17명):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 주간재활 프로그램 참여 회원(홍성군내 거주 만성정신질환자)
- 진행인력 및 역할
  - 홍성군정신건강복지센터(2명): 참가자 인솔, 개별 지원
  - 협동조합 행복농장(3명): 전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농작업 교육, 나들이 교통 지원
  - 기타 (3명): 요가 및 명상 지도, 사진 기록, 보고서 작성

### 3) 일정

일 정		내 용
1	2019. 3. 13.	○ 사전검사 ○ 자기소개, 이름표 만들기 ○ 행복농장 라운딩 ○ 꽃 씨앗 심고 물주기
2	2019. 3. 27.	○ 스피어민트 삽목하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 잔디인형 만들기
3	2019. 4. 10.	○ 상추 수확하기 ○ 1회기에 심은 꽃 분갈이하기 ○ 요가 및 명상프로그램

4	2019. 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추 뽑기</li> <li>○ 바질 삼목하기</li> <li>○ 부침개 만들기</li> <li>○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li> </ul>
5	2019. 5.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로 밭 일구기</li> <li>○ 옥수수, 해바라기 등 식재하기</li> <li>○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li> </ul>
6	2019. 5.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텃밭 팻말 만들기</li> <li>○ 조별 텃밭 잡초 정리와 젓순 따기, 지지대 세우고 줄 묶기</li> <li>○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li> </ul>
7	2019. 6.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별 텃밭 잡초정리, 왕겨 덮기, 젓순 따기</li> <li>○ 루꼴라 피자 만들기</li> </ul>
8	2019. 6. 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레몬버베나 삼목하기</li> <li>○ 감자캐기</li> <li>○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li> </ul>
7~8월 여름 방학		
9	2019. 9.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밭 정리하기</li> <li>○ 레이크로 밭 만들기</li> <li>○ 여름밭 정리, 수확하기</li> <li>○ 가을 작물(무쌔앗 뿌리고, 배추 심기)</li> </ul>
10	2019. 9.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을 작물 돌보기 (김매기, 방제)</li> <li>○ 고구마 수확하기</li> </ul>
11	2019. 10.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돌샘터 농장 방문(두부만들기, 허브 족욕 체험)</li> <li>○ 태안 바다 나들이</li> </ul>
12	2019. 10.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을 작물 돌보기2 (김매기, 방제)</li> <li>○ 손수건 천연염색하기</li> </ul>
13	2019. 11.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추 아주 심기</li> <li>○ 모종 옮겨심기 및 관리</li> <li>○ 요가 명상 프로그램</li> </ul>
14	2019. 11.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 배추 가을 작물 수확</li> <li>○ 밭 정리하기</li> <li>○ 수료식(소감 나누기, 수료증 수여)</li> </ul>

4) 세부 내용

1회차 / 2019. 3. 13

- 사전검사, 자기소개
- 이름표 만들기
- 행복농장 라운딩
- 꽃 씨앗 심고 물주기



2회차 / 2019. 3. 27

- 스피어민트 삽목하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 잔디인형 만들기





3회차 / 2019. 4. 10

- 상추 수확하기
- 1회기에 심은 꽃 분갈이하기
- 요가 및 명상프로그램



4회차 / 2019. 4. 24

- 상추 뽑기
- 바질 삽목하기
- 부침개 만들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5회차 / 2019. 5. 8

- 조별로 밭 일구기
- 옥수수, 해바라기 등 식재하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6회차 / 2019. 5. 22

- 조별 텃밭 팻말 만들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 텃밭 잡초 정리와 젓순 따기, 지지대 세우고 줄 묶기



7회차 / 2019. 6. 12

- 조별 텃밭 잡초정리, 왕겨 덮기, 젓순 따기
- 루꼴라 피자 만들기





8회차 / 2019. 6. 26

- 레몬버베나 샐러드하기
- 감자캐기
-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



9회차 / 2019. 9. 11

- 밭 정리하기
- 레이크로 밭 만들기
- 여름밭 정리, 수확하기
- 가을 작물(무씨앗 뿌리고, 배추 심기)





10회차 / 2019. 9. 25

- 가을 작물 돌보기 (김매기, 방제)
- 고구마 수확하기



11회차 / 2019. 10. 16

- 돌샘터 농장 방문(두부만들기, 허브 족욕 체험)
- 태안 바다 나들이



12회차 / 2019. 10 30

- 가을 작물 돌보기2 (김매기, 방제)
- 손수건 천연염색하기



13회차 / 2019. 11. 13

- 상추 아주 심기
- 모종 옮겨심기 및 관리
- 요가 명상 프로그램



14회차 / 2019. 11. 27

- 무, 배추 가을 작물 수확
- 밭 정리하기
- 수료식(회고하기, 소감 나누기, 수료증, 선물 수여)





## 5) 소감

### Q. 가장 좋았던 점은?

- "회원들이 다같이 함께 일을 하니 뿌듯했다."
- "직접 심고 키운 배추로 김장을 하니 좋았다."
- "다 같이 밖에 나오니 놀러가는 것 같고 좋았다."
- "부침개 만들어 먹었는데 맛있었다."
- "다른 회원들을 도울 수 있어 좋았고 개인적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 "기분전환도 되고 마음이 편안했다."
- "일을 하면서 땀도 흘리면서 수확도 하고 좋았다."
- "색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었다."
-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다."

### Q. 아쉬웠던 점은?

- "농사일은 집에서도 하는데 또 하려니 힘들었다."
- "매번 직접 버스를 타고 가서 힘들었다."
- "상추를 뽑거나 레이크질 하는 것들이 체력적으로 힘들었다."
- "경제적인 이득이 있었으면 좋겠다."
- "많이 못 도와준 것 같아서 아쉬웠다."
- "취업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받아 취업도 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다."

### Q. 개선하기 위해 건의할 사항은?

- "농사일 뿐만 아니라 곰돌이 화분 같은 프로그램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 "두부 만들기처럼 자주 다른 곳으로 나가 체험했으면 한다."

- "회원들에게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
- "다음에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 "동료지원가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배우고 싶다."
- "동료지원가가 직업적으로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농장 활동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6) 설문 평가

- 응답: 11명
- 연령대: 30대 4명, 40대 9명, 50대 3명, 70대 이상 1명
- 프로그램 참여횟수: 14회(개근) 13명, 12회 1명, 10회 2명, 4회 1명

설문내용	답변 내용						
	계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	17명	12명	5명	0명	0명	0명	
	100%	71%	29%	0%	0%	0%	
담당자 친절도	17명	14명	3명	0명	0명	0명	
	100%	82%	18%	0%	0%	0%	
전반적인 만족도	17명	8명	6명	3명	0명	0명	
	100%	47%	35%	18%	0%	0%	
재활과정 기여도	17명	7명	7명	3명	0명	0명	
	100%	41%	41%	18%	0%	0%	
프로그램 지속여부	17명	9명	6명	2명	0명	0명	
	100%	53%	35%	12%	0%	0%	
진행방법 만족도	17명	8명	8명	1명	0명	0명	
	100%	47%	47%	6%	0%	0%	

## 7) 기관평가

- 주간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체 회원 28명 중 16명(57%)이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활동 수준이 낮은 반면 회원들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는 높은 것으로 파악됨.
- 농촌지역인 홍성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취업 동기를 강화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었음.
- 삼목하기, 결순 제거와 같은 농업활동 통해 회원들의 직업적 기능을 향상할 수 있었으며 단체활동을 통해 대인관계활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대인관계능력이 향상에 도움이 됨.
-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들이 즐거움, 감사함, 안정감을 느끼는 등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만족도가 높게 평가됨.
- 버스 이용 등 직업재활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제반 활동들을 반복하며 점차 일상생활기능이 향상되는 모습 보임.
- 직업재활프로그램 중 실시된 요가 및 명상 프로그램도 어렵지 않은 동작으로 회원들이 몸을 긴장하고 이완시키는 활동을 하며 편안하고 즐겁다는 의견이 많았음.
- 직업재활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았으며 현재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회원 전체가 추후 계속 프로그램이 지속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답함.

## 8) 종합평가

-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직업재활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평가 조사 결과 전체적인 프로그램 만족도 높으며,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자립과 지역사회 복귀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었음.
- 농업치유프로그램에서는 농작물의 생산과 포장, 요가, 요가, 천연 염색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농업 관련 직업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의 기회 제공 함. 또한 농업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버스카드 구입 및 시내버스 이용, 일상복과 작업복의 구분, 공공장소 에티켓 준수, 지역주민과의 만남 등의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기술을 향상할 수 있었음.
- 올해 농업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한 회원 17명 중 2명은 2020년 행복농장에서 장애인 인턴으로 고용할 예정이며 인턴 급여는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여 회원들에게 수준 높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임.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한 동료지원가 양성 교육 과정에 참여함.
-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으로 기본과정(증상 경험 나누기, 회복 계획 세우기), 심화과정(동료지원가 업무소개, 동료상담 이론 및 실습), 실습과정(프로그램 운영, 신규회원 멘토링)으로 나누어 운영됨. 회원들이 자기 이해 및 증상 직면을

통해 기능 향상에 도움이 되었으며 실습훈련비가 제공되어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 프로그램 종료 후 지속적인 직업 유지가 어려워 아쉬움이 남음.

- 회원 만족도 및 프로그램 효과성 모두 높아 2020년에는 확대 운영할 계획이며 동료지원가 또한 지속적인 연계 및 참여 독려할 계획임.

## 다. 꼬마농부학교

### 1) 개요

- 일시: 2019년 4월 ~ 11월, 총 7회
- 장소: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곡면 도산2구 오누이센터 인근
- 주최: 농림축산식품부
- 주관: 협동조합 행복농장, 장곡초등학교

### 2) 목적

- 마을의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농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농업과 마을을 기반으로 한 진로 교육과 노작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
- 농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내 특수교육 관계망을 형성함. 이는 학교에만 머물러 있는 발달장애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마을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정체성을 느끼게 해 주고, 마을과 학교가 특수교육 아동을 함께 돌보는 마을 공동체 케어 역할을 보다 긴밀히 수행하도록 함.
- 향후 발달장애 아동 청소년 농부학교 프로그램 확립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을 담당함.

### 3) 프로그램 내용

회차	날짜	내 용
1회차	2019년 4월 18일	<p>꽃씨와 채소 씨앗 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선덩굴과 붓꽃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직접 심어 본다.</li> <li>- 일반 양배추와 다르게 생긴 방울양배추 씨앗을 직접 심어 본다.</li> </ul>
2회차	2019년 5월 9일	<p>모종 옮겨심고, 화분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차 수업 때 씨앗을 심은 풍선덩굴이 싹을 틔웠다. 이 모종을 더 큰 포트에 옮겨심어 본다.</li> <li>-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선생님께 선물할 꽃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본다.</li> </ul>
3회차	2019년 5월 23일	<p>모종 화단에 옮겨심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회차 수업 때 옮겨심은 채송화 모종을 야외 화단에 자리를 잡아 심어 준다.</li> </ul>

4회차	2019년 6월 27일	<p>감자 수확 채송화 꽃밭 풀 뽑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 밭에서 감자 수확하기</li> <li>- 지난 수업 때 심은 채송화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채송화 주변 풀 뽑기</li> </ul>
5회차	2019년 10월 10일	<p>고구마 수확 메리골드 꽃으로 손수건 염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지 밭에서 고구마 수확하기</li> <li>- 메리골드 꽃을 따서 끓인 다음 손수건에 메리골드 꽃 물들이기</li> </ul>
6회차	2019년 10월 24일	<p>나만의 화관 만들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단과 주변에 핀 다양한 꽃들을 수확해 나만의 화관을 만들기</li> </ul>
7회차	2019년 11월 14일	<p>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 6회차 수업 과정을 사진으로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기</li> </ul>

#### 4) 세부 내용

1회차 / 19. 4. 18	
장소	행복농장, 야외화단
제목	꽃과 채소 씨앗을 심어 나만의 화단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꽃 파종: 풍선덩굴 씨앗, 붓꽃 씨앗, 상토, 포트, 이름표, 펜)</li> <li>- 채소 파종: 방울양배추 씨앗, 상토, 포트, 이름표, 펜)</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선덩굴과 붓꽃 씨앗이 어떻게 생겼는지 관찰하고, 직접 심어 본다.</li> <li>- 일반 양배추와 다르게 생긴 방울양배추 씨앗을 직접 심어 본다.</li> </ul>
과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포트에 적당한 양의 상토를 담는다.</li> <li>2) 각 씨앗을 포트에 골고루 넣는다.</li> <li>3) 씨앗을 넣은 뒤 상토를 얇게 덮어준다.</li> <li>4) 각 씨앗의 이름을 이름표에 적어 포트에 꽂아준다.</li> <li>5) 파종한 포트를 모판에 옮겨 담아 육묘장에 두고 물을 준다.</li> <li>6)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li> </ol>



2회차 / 19. 5. 9	
장소	행복농장, 야외화단
제목	모종을 옮겨심고 꽃 화분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 모종 옮겨심기: 풍선덩굴 모종, 채송화 모종, 포트, 상토, 이름표, 펜 - 꽃 화분 만들기: 꽃 모종, 상토, 화분, 이름표, 펜
내용	- 지난 수업 때 씨앗을 심은 풍선덩굴이 싹을 틔웠다. 이 모종을 더 큰 포트에 옮겨심어 본다. -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 선생님께 선물할 꽃 화분을 직접 만들어 본다.
과정	1) 포트에 적당한 양의 상토를 담는다. 2) 싹을 틔운 풍선덩굴 모종을 조심스럽게 꺼낸다. 3) 모종을 넣은 뒤 상토를 얇게 덮어준다. 4) 이름표를 꽂아준다. * 채송화 모종도 1)~4)번과 같은 과정으로 작업한다. 5) 꽃을 심을 화분에 상토를 담는다. 6) 준비한 꽃 모종 3개를 화분에 심고, 상토를 덮어 준다. 7)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



---

3회차 / 19. 5. 23

---

장소            행복농장, 야외화단

---

제목            꽃 모종을 심어 나만의 화단을 만들어 보자

---

준비물        - 모종 화단에 옮겨심기: 채송화 모종, 물조리개, 호미, 이름표

---

내용            - 지난 수업 때 옮겨 심은 채송화 모종이 자라 야외 화단에 자리를 잡아 심어 준다.

---

과정

- 1) 채송화 심을 자리에 난 잡초를 뽑는다.
- 2) 채송화 심을 자리를 호미로 판다.
- 3) 포트에서 채송화 모종을 하나씩 꺼내 심고 흙을 덮어 준다.
- 4) 이름표를 꽂아 준다.
- 5)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와서 충분히 적셔 준다.
- 6)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



---

4회차 / 19. 6. 27

---

장소            행복농장, 야외화단

---

제목            감자를 수확하고, 화단 잡초를 뽑아 보자

---

준비물        - 감자 수확: 호미, 장갑, 장화, 박스  
- 풀뽑기: 호미, 장갑, 장화

---

                  - 감자 수확

내용            - 지난 수업 때 심은 채송화가 얼마나 자랐는지 보고,  
                  채송화 주변 풀 뽑기

---

과정            감자 수확

---

- 1) 감자 이랑을 호미로 캔다.
- 2) 땅속에서 감자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긁어내 감자를 캔다.
- 3) 캔 감자는 박스에 담는다.

**풀 뽑기**

- 1) 채송화 밭에 난 풀을 호미로 뽑아준다.
- 2) 풀을 뽑은 뒤에는 물조리개에 물을 담아 와서 충분히 준다.
- 3)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



5회차 / 19. 9. 23

**장소** 마을노지밭, 오누이센터

**제목** 고구마를 수확해 보자  
메리골드 꽃으로 손수건을 염색해 보자

**준비물**  
- 고구마 수확: 호미, 장갑, 장화, 박스  
- 메리골드 염색: 메리골드 꽃, 손수건, 냄비, 물, 휴대용 가스렌지

**내용**  
- 고구마 수확  
- 화단에 핀 메리골드 꽃을 따서 손수건에 염색하기

**고구마 수확**

- 1) 고구마 이랑을 호미로 캔다.
- 2) 땅속에서 고구마가 보이면 조심스럽게 손으로 흙을 긁어내 캔다.
- 3) 캔 고구마는 박스에 담는다.

**과정**

**메리골드 염색**

- 1) 메리골드 꽃을 손으로 뜬다.
- 2) 손으로 뜬 꽃을 냄비에 넣고 물을 담아 끓인다.

- 3) 다 끓었으면 충분히 식힌 다음, 손수건을 담귀 주물러 준다.
- 4) 우려나온 꽃물을 버리고 새 물을 받아 다시 주물러 준다.
- 5) 다시 우려나온 꽃물을 버리고 행귀 준다.
- 6) 더 이상 꽃물이 나오지 않을 만큼 행군 뒤, 손수건을 꼭 짜서 말린다.
- 7)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



6회차 / 19. 10. 24	
장소	오누이센터, 야외화단
제목	나만의 화관을 만들어 보자
준비물	- 화관에 쓸 식물 채집: 장갑, 가위, 바구니 - 화관 만들기: 도화지, 가위, 풀, 테이프, 색연필
내용	- 야외 화단과 주변에 핀 다양한 꽃과 가을 열매들을 수확해 이름을 알아보고, 나만의 화관을 멋지게 만들어 본다.
과정	1) 야외 화단을 둘러보면서 어떤 꽃과 열매를 딸지 살펴본다. 2) 마음에 드는 꽃이나 열매를 가위로 따다.

- 3) 가위로 딴 꽃과 열매는 바구니에 담는다.
- 4) 바구니에 담은 재료를 강당으로 가지고 온다.
- 5) 화관에 어떻게 장식할지 생각해 보고 하나씩 재료를 배치해 본다.
- 6) 배치가 결정되면 재료들을 풀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도화지에 고정시킨다.
- 7) 모든 재료들을 고정시켰으면 도화지를 둥글게 말아 머리에 써본다.
- 8) 활동 내용을 각자 글이나 그림으로 자기 노트에 기록한다.



## 5) 평가

-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도구를 다루거나 움직임은 서투르지만 매우 적극적으로 매 회차 즐겁게 활동함. 학생들을 인솔하는 장곡초등학교 돌봄반 지도교사 말에 따르면, 학생들이 이 수업 시간을 기다리고 더 자주 수업을 하고 싶어함.
- 프로그램 참여자 두 학생의 발달장애 정도의 차이가 있어 진행자가 한 학생마다 곁에서 지도하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음.
- 학교가 속해 있는 마을의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마을 이웃들을 만나고, 마을 이웃들은 학생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마을 공동체의 같은 일원이라는 소속감을 형성함.
- 처음에는 흙을 지저분하게 생각하거나 밭에 들어가기를 꺼려하던 학생들은 회차를 거듭하면서 자연스레 흙을 만지게 되었다. 내년에는 옥수수도 심자, 딸기도 심어 보고 싶다고 자기 의견을 말하는 학생들을 통해 꼬마농부학교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확인함.
- 올해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보다 짜임새 있는 한 해 농부학교 프로그램을 만들어 마을의 발달장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아 가기를 바램.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공병해. 2017. 『돌봄의 철학과 미학의 실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도현. 2019. 『장애학의 도전』. 오월의 봄.
- 엄기호. 2019.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 나무연필.
- 에드워드 펠프. 2005.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 2. 정기간행물 / 자료집

- 김은주·이상수. 2005. “유아교육에서 ‘돌봄’과 ‘살림’에 대한 논의”. 『아시아교육연구 6권 3호』.
- 이정해. 2017. “유럽의 사회적 농업 - 실천과 지원정책”. 『농정연구 63호』 (2017년 가을)
- 황수철. 2017. “생산주의 농업에서 다기능 농업으로”. 『한국의 농업 현실과 사회적 농업』. 협동조합 행복농장.
- 김정섭. 2019. “사회적농업, 지역사회를 돌보는 농업”. 『19년 사회적농업 활성화 워크숍 자료집』. 충청남도.
- 행정안전부 사회혁신추진단. 2018. 『시민의 참여로 만드는 변화 사회혁신의 이해』. 행정안전부.

### 3. 연구보고서

- 김정섭·안석·이정해·김경인. 2017. 『사회적 농업의 실태와 중장기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상진·정은미·김경인. 2017. 『고령화시대 청년 창업농업인 육성체계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마을연구소일소공도협동조합. 2019. 『청년 삶의 경로탐색 프로젝트 <별의별 이주○○> 확대 및 발전방안』.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2016. 『농촌형 직업재활프로그램개발보고서 자연구시』.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 Iacovo, F. D., & D.O' Connor. 2009. *Supporting Policies for Social Farming in Europe: Progressing Multifunctionality in Responsive Rural Areas*. Toscana: ARSIA